metro

메트로 2014년 7월 7일 월요일 제3000호 www.metroseoul.co.kr

화상경마장으로 갈라진 민심 6일 서울 용산 용산화상경마장 앞에서 화상경마장의 개장에 찬성·반대 측 관계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역에 있던 기존 시설을 용산 전자상가 인근으로 확장 이전하려 했으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반발로 개장을 미뤄오다 지난달 28일 일부 층에 한해 시범개장 했다. /연합뉴스

지상파 3사 방송시장 물 흐린다

Issue&View 지상파 방송의 끝은 어디

유료 방송사와 법정 분쟁·툭하면 정부 정책 비판

/이재훈기자 ljh@metroseoul.co.kr

지상파 방송사의 끝없는 탐욕이 방송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

6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상파 방송 3사는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유료방송사들과 법적 분쟁에 나서고 있다. 또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상파 3사는 글로벌 축구 축제인 '2014 브라질 월드컵'의 재송신료를 두고 조만간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 5월 유료방송사업자에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에 대한 추가 재송신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유료방송사업자는 이미 재송신료를 내고 있는데 월드컵을 위해 요금을 추가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유료방송사업자들은 "협상에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실시간 방송에 대한 월드컵 재송신료를 추가로 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상파 3사에 발송했다.

이후 지상파 3사는 우리나라의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로 광고 유치 실적이 부진하자 화살을 유료방송업계에 돌렸다.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추가 재송신료를 확보해 매출 부진을 만회하자는 심산이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정부가 중소 PP를 지원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종편과 대기업 PP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甲의 지위 앞세워 월드컵 요금 압박

시청자 이익 외면

지상파 방송사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PP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명분 아래 종편과 CJ 같은 대형 PP사업자들에게까지 세제감면과 광고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콘텐츠 제작자들의 공정경쟁 생태계를 해치는 특혜성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PP업체 관계자는 "지상파 역시 KBS N·MBC 플러스미디어·SBS 플러스 등 PP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PP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역설했다. 실제 중소 PP 사업자들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지상파가 앞장서 중소 PP 지원에 나서진 못할 망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총회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표준안이 부결되자 이동통신 3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통3사가 과반수에 가까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700MHz 주파수 대역 확보를 위해 이번 표준안을 부결시켰다는 주장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이번 기술표준안이 채택됐다면 국민이 내년부터 UHD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다"며 "이번 TTA 총회에서 보여준 이통사의 행태는 UHD 방송산업의 진흥과 시청자 이익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甲의 지위'를 앞세워 유료방송업계에 월드컵 추가 재송신료 지급 압박을 가하는 한편, 모바일IPTV와 월드컵 중계는 전면 차단했다"며 "결국 시청자 이익을 외면하는 자신들의 행위는 심각하지 않고 조금만 잘못된다 싶으면 피해자인 양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방송업계 관계자도 "UHD 방송시대를 앞둔 지금, 어느 때보다 방송업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지상파 3사는 오히려 자신들의 탐욕만을 내세워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며 "사적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업계 맏형으로 국민이익 추구를 위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11월 13일 실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3일에 실시되고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달 25일부터 시작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일 '2015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7일자로 공고했다. 수능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달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19일간, 원서를 내고서 응시영역과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9월 5~12일 3일간이다.

올해 영어 영역은 통합형으로 전환되고 국어·수학 영역은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이 유지된다. 단 수험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국어·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된다.

탐구영역에서 사회탐구는 10개 과목에서 최대 2개,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최대 2개, 직업탐구는 5개 과목 중 1개를 각각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가운데 1개를 고를 수 있다. EBS 수능교재·강의와 연계되는 비율은 예년과 같이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 유지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3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최종 정답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후 11월 24일 오후 5시에 발표된다. /서은다혜기자 ·eh@

더 완전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 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서애 류성룡함 미사일 요격 성공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참가 중인 해군 구축함 서애류성룡함(7600t급)이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지난달 18일 하와이 근해에서 자유으로 SM-2 대공미사일을 발사해 우리 함정으로 날아오는 2개의 표적을 요격하는 등 4발의 유도탄 발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 /해군 제공

인사청문회 정국 '전운'

최양희·이병기 시작 릴레이… 세월호특위 靑 업무보고도

인사청문회와 청와대의 세월호 국조특위 업무보고가 몰려 있는 이번주 정국은 여야의 강대강 정면충돌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7·30 재·보선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인사청문회는 선거를 의식한 여야의 치열한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주 총 8명의 장관 후보자(국정원장 후보자 포함)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9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10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 등 야당에 의해 '낙마대상 1호'로 낙인찍혀 있는 상태다. 이병기 후보자도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연루 전력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을 비롯해 '+α 낙마'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안대희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 파장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중 한 명이라도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정치적 타격이 작지 않기 때문에 '전원 사수'를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세월호 국조특위도 청와대(비서실·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10일)의 업무보고가 예정된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의 "발언 왜곡" 논란으로 새누리당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또 이달은 그동안 인사난맥상과 국정파행에 대해 김기춘 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해온 터라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illegible] metroseoul.co.kr

인사청문회 준비 분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국회 청문회장에서 생중계 할 방송사 관계자들이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vs 기동민 '모락모락'

새누리, 동작을 김문수 대체카드 '민지작'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전략공천 계획이 수포가 된 이후 인물난에 빠진 새누리당이 다시로 나경원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작을 보궐선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인 기동민 전 서울시부시장의 공천을 확정한 만큼, 과거 박 시장과 맞붙은 나 전 의원을 내세워 설욕전 구도로 싸움을 치르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동작을 보궐선거에 김 전 지사를 공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본인의 불출마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현재 김 전 지사를 제외하고 4~5명의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가상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전 최고위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3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장기 자문단의 일원으로 아프리카 르완다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고려 대상에서 사실상 빠졌다. /[illegible] 기자

"정종섭 군복무 중 시간강사 의혹"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에 학위를 준비했다는 의혹에 이어 시간강사로 대학에 출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6일 서울대 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공개하면서 정 후보자가 1988년 3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경원대와 명지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985년 4월~1989년 1월 법무관으로 복무했고, 이 중 출강 기간과 겹치는 1988년 3월부터 1989년 1월까지 용인 제55사단에서 법무참모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역 군인이 시간강사 활동을 한 것"이라며 "정 후보자는 복무시절 학위 취득 의혹에 대해 '지휘관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는데 시간강사 출강도 허가를 받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군무이탈이며 허가를 받았어도 특혜 지적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illegible] 기자

뉴스&뉴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수원정 출마선언

●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6일 7·30 재보궐선거 경기 수원정(영통)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경기 평택을에 공천신청을 했던 임 전 실장은 "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당의 영통 출마 요청을 수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명길 전 MBC 부국장, 대덕 경선 불참

●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최명길 전 MBC 경인총국 부국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최 전 부국장은 "(김창수 박영순 등) 새정치의 가치에 맞지 않는 후보가 참여하는 경선을 당 최고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의가 의결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LA서도 5박6일 북한 관광객 모집

● 미국 LA를 포함하는 남부 캘리포니아주에 북한 전문 여행사가 탄생했다. 하나로여행사는 사이트(www.hanarotravel.org)를 개설하고 5박 6일 일정의 여행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 관광은 중국 베이징의 고려여행사, 영국의 주체여행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입건

"정치 댓글 관여한 적 없다"던 수사본부 방향 선회

군 수사기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관여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6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혐의로 지난달 중순 형사입건했다"며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만간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군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 소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맡았고, 옥 준장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 중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중간수사에서 전 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던 조사본부가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을 형사입건한 것은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직업 이상으로 정치글 작성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llegible] 기자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서울 도봉구는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발표에 따라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다음달 29일까지 시행된다. 문을 열고 냉방하는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공기관의 실내 냉방온도는 28℃이상으로 제한된다.

중랑구, '건강강좌 릴레이'

서울 중랑구 보건소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우림시장 내 일광사에서 '건강강좌 릴레이'를 개최한다.

▲9일 웃음치료 ▲16일 철학 에 ▲23일 손 씻기 ▲30일 치매 ▲다음달 6일 우울증 ▲13일 금연 ▲20일 고혈압 ▲27일 구강검진을 끝으로 건강 교육이 마무리 된다.

주민참여예산 제안 접수

서울 관악구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신청 받는다.

주민 누구나 구청 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하거나 기획예산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너구리' 내일 오전 제주도로

슈퍼태풍 발달 가능성 '비상체계'

제8호 태풍 '너구리'가 제주도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어 한반도를 비롯해 일본 등에 비상이 걸렸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괌 서남서쪽 약 330km 부근 해상에서 발달한 제8호 태풍 너구리가 시속 25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약한 소형으로 중심기압 998hPa, 최대풍속 18m/s으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서진 중이지만, 따뜻한 해수면을 지나면서 더욱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오전 9시경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630km 부근 해상에 진근해 8일 오전 슈퍼태풍으로 발달해 제주도 남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라 장마전선 동향과 강수전망 역시 예측이 어렵다"며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온다혜기자 yoh@

살인교사 직접 증거 찾아라

사건 인계 검찰 '김형식 스모킹건' 확보 주력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확실하게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인 증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팽(44·살인 혐의 구속)씨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 팽씨는 2012년 김 의원이 "송씨에게 빌린 5억여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하니 죽여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면 김 의원에게 빌린 7000만원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사전에 송씨의 일정과 동선을 시간대별로 파악해 팽씨가 흔적을 안 남기고 범행하도록 행동지침과 함께 범행도구로 쓰인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직접 구해줬다.

팽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김 의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의원으로부터 도피자금과 가족 생활비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와 가까운 건축사와 송씨 가족의 진술, 김 의원이 송씨에게 써준 차용증과 같은 간접증거들을 토대로 김 의원에게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팽씨가 송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손도끼 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팽씨와 범행을 전후해 사용한 대포폰을 버렸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삭제돼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5억여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은 발견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살인교사의 직접 증거로 불충분하다.

결국 검찰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김 의원의 입을 여는 카드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팽씨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노력도 해야한다. 짧은 수사기간 탓에 경찰이 미처 김 의원에게 적용하지 못한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검찰의 김 의원 구속기간 만기일은 오는 12일이며 법원의 허가로 한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층간 소음 초등생 폭행 주부 벌금형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주부 박모(48)씨가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월 13일 오전 8시께 부산시 해운대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윗집에 사는 A(9·초등 2년)군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A군을 나무라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A군은 이 사건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약식기소하려는 대신에 정식 재판에 넘겼다. /연선기자

붐비는 속초해수욕장 개장 이후 첫 휴일을 맞은 속초해수욕장이 6일 피서객으로 붐비고 있다. 속초해수욕장은 지난 1일 강원도 내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연합뉴스

서울여대, ACE 연속 선정

서울여대는 2014년도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에 연속 선정돼 연간 15억6700만원을 4년간 지원받게 됐다.

유일한 ACE 여자대학인 서울여대는 대한민국 학부교육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ACE 재진입을 위해 노력했고 체계적으로 사업에 준비한 결과 2주기 ACE 재진입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김선우 작가 초청 특강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가 최근 '2014 ACM ACADEMY'의 두 번째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3월 엄옥상 화백의 특강에 이어 이번 특강에서는 시인이자 소설가 김선우씨가 초청돼 강연했다.

김 작가는 '문학, 일상의 유쾌한 혁명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문학을 통해 일상을 성찰하고 삶의 주체성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전달했다.

시니어 인문 동아리 지원

서울시는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건전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된 '마을로 시니어인문학 소모임'에 참여할 인문학 동아리 5팀을 다음달 20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5팀은 9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3개월 간의 활동하게 된다. 이 기간에 쓰일 강사비, 다과비, 공간대여료 등 비용의 최대 30% 21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0~65세의 인문학에 관심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기반조성팀(070-4666-8721/070-4666-8725)에 문의하면 된다.

오늘 '행복한 동행' 공연

안전보건공단은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건설현장을 소재로 한 안전연극 '행복한 동행'을 무료로 공연한다.

이번 연극은 위험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후 1시와 오후 3시 30분 2회 공연한다. 공연장은 약 400석 규모로 선착순 입장하며 전석 무료이다.

경영학과 나와 곧바로 MBA 도전할래

내 적성을 찾아라! 방송통신대 Q&A ⑧ 경영학과

Q 방송통신대 경영학과는 어떻게 개설되었나

A 경영학과는 기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영학적 사고의 틀을 갖추고 평생 학습하는 창의적인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72년 개설되었습니다. 등록금은 35만원 내외이며 다양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Q 경영학과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나

A 경제·기술·사회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기초가 되는 행동과학(조직행위론), 경영과학(경영의사결정론) 및 경영관리의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기 위한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학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Q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나

A 졸업 후 민간과 공영기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비롯해 경영 전문 인력을 요구하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또 방송통신대 경영대학원에 진학해 글로벌 시대에서 경영활동을 해나가기 위한 MBA 과정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02-3668-4620 /윤다혜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이 경영학과 전국네트워크 워크샵에서 장기자랑을 하고 있다. /방송대 제공

가정보호사건 3년새 2배

배우자나 가족을 구타하거나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가정폭력 사건의 법원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은 6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는 2010년 730건에서 2013년 1464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사회 분위기의 변화로 피해자들이 배우자 등의 폭력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이 4대 악에 포함되면서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송치함에 따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준기자

행운의 7글자 '한국방송통신대'를 잡아라

한국방송통신대가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기념해 깜짝이벤트 '7월 7일 행운의 7글자를 잡아라!'를 통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총 777명에게 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7일 하루 동안만 방송대 홈페이지(www.knou.ac.kr)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행운의 행운 글자인 '한국방송통신대'와 이름 및 연락처 등을 남기면 된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총 777명에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톨 사이즈) 기프티콘을 선물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대는 16일까지 총 22개 학과에서 2014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구룡마을 개발 백지화되나

서울시 vs 강남구 개발방식 놓고 책임 공방만

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주민공람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지난 4일까지는 양측이 합의했어야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구역 실효 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양측이 6일까지 협상 테이블에 한 번도 마주 앉지 않아 결국 사업이 무산될 지경에 놓였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하기로하자 강남구가 반대하고 나서 수년째 사업이 표류했다.

강남구가 "서울시가 특혜 의지가 전혀 없는 제3의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협의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제3의 대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는 '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 원칙 아래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최대 230㎡), 연립주택 부지(최대 90㎡),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수정계획안을 만들어 강남구에 두 차례 제출했지만 강남구는 모두 반려했다.

다만 시 관계자는 "다음 달 2일 구역실효가 된 후에라도 강남구와 협의가 이뤄지면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짜더라도 3개월 안에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고소 상대방 경찰 조사 받으면 문자 통지

앞으로는 누군가를 고소할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서 실제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즉각 알 수 있게 된다.

경찰청 수사국은 피고소인이 1차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이튿날 고소인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제도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일로부터 한 달 간격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우편 통지해 왔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통지 대상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 민원 관련 사건이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할 때 사건 처리 진행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고 싶다고 밝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민원인과 일선 수사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관련 제도를 꾸준히 보완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dh@

얼룩진 美 독립일

인디애나폴리스·휴스턴 총기난사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은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13명이 다쳤다.

CNN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의 번화가인 브로드리플에서 5일 (현지시간) 오전 2시30분께 총격이 발생해 7명이 부상을 했다.

7명중 1명은 중태로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인디애나폴리스 경찰청은 현장에서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

이보다 앞서 오전 2시께에는 휴스턴에서도 수천 명이 모여 있던 음악 축제 행사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4명이 다쳤다.

관객들이 황급히 총격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여성 2명이 부상했다.

/이국명기자

팔레스타인 소년, 산채 불타 죽어

이스라엘 보복 살해 추정
폭력시위 60명 넘게 다쳐

팔레스타인 10대 소년이 산채로 불타 죽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BBC 등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안델가니 알오와위 법무장관은 "지난 2일 동예루살렘에서 납치된 뒤 약 한 시간 후 인근 숲에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된 16세 무함마드 아부 크다이르의 호흡기에서 화재 분진이 검출됐다"며 "몸의 90%를 뒤덮은 불길 때문에 결국 사망했다"고 말했다.

호흡기에서 화재 분진이 검출된 것은 불이 몸에 붙었을 당시 피해자가 숨을 쉬고 있었다는 뜻이다.

알오와위 법무장관은 피해자의 머리 오른편에서 둔기나 다른 단단한 물체에 의해 충격을 받은 흔적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극우세력이 지난달 30일 발생한 유대인 청소년 3명 피살 사건에 보복하려는 목적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검 결과가 알려지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등에서는 수십 건의 폭력 시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예루살렘 내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은 5일 차를 타고 가던 이스라엘인을 끌어낸 뒤 차에 불을 지르고 경찰과 충돌했다. 이 충돌로 팔레스타인인 50명과 경찰 13명이 다쳤다.

팔레스타인 측이 남부 베르셰바 등을 향해 30여 발의 로켓포를 발사하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군사시설을 대응 공습했다.

한편 이스라엘 경찰이 크다이르의 장례식에 참석한 미국 국적의 사촌을 체포 구타하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외교갈등도 촉발됐다.

15세인 크다이르의 사촌동생은 장례식에서 벌어진 폭력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아직 구금된 상태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2020 도쿄 올림픽 경기장 반대 일본 시위대가 5일 도쿄에 있는 국립 경기장 주변을 행진하고 있다. 약 500명의 시위대는 정부가 56년 된 국립 경기장을 부수고 이 자리에 2020 도쿄 올림픽을 위한 초현대적 대형 경기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AP 뉴시스

market index <4일>

코스피 2009.96 (-1.31)
코스닥 552.90 (+2.22)
금리 2.61 (+0.01)
환율 1009.70 (+1.20)

벽걸이 에어컨 30만원대 6일 서울 롯데하이마트 영등포점에서 모델이 30만원대 벽걸이 에어컨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제공

동부, '제2 동양사태'로 번지나

동부제철 개인투자 전체 97%… 2700억대 피해 예상
금융권 "유동성 위기 달라 대거 손실사태 없을 것"

Issue&View 동부사태 파장

/김현정기자 hjam1@metroseoul.co.kr

동부증권에 유동성 위기에 몰린 동부그룹 회사채의 절반 이상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2의 동양사태 악몽이 되살아났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는 동부와 동양의 유동성 위기 성격이 다르며 동부는 발빠르게 개인투자자 손실 방지에 나서 동양과 같은 대거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부그룹 구조조정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제철의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규모는 지난 3월 기준 1만1408명, 27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97.3%에 달하는 규모다.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의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가 전체의 99%에 달하는 2만7981명에 달했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과 금융당국은 동부가 제2의 동양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먼저 동부제철 채권단이 7일 자율협약을 시행하면서 개인투자자의 회사채 보유분을 매입하기로 했다.

만기가 돌아오는 동부제철 회사채에 대해 채권단이 지원이다 상환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므로 개인투자자가 동양과 같은 원금손실 등의 피해를 보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동양의 경우 채권단 관리를 회피하려고 금융권 대출보다 고금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탓에 채권단 관리가 적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동부는 금융권 대출과 회사채 위주이므로 채권단 관리를 통한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하다.

◆구조조정 시 오너 경영권 위태

대신 동부는 채권단이 강도높은 구조조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채권단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사를 거쳐 오는 9월 동부제철이 차등감자를 적용하면 오너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와 일반주주 감자비율을 다르게 하므로 김준기 그룹회장 등 대주주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줄줄이 투기등급으로 신용이 강등된 동부 계열사들은 자체적인 자금 조달줄이 끊긴 상태다. 그만큼 채권단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채권단 지원을 받으면 다음 달까지 2개월간 만기가 돌아오는 동부제철의 회사채 1100억원에 대한 자금 발행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경영권을 둘러싼 동부 측과 채권단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잡음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채권단이 담보로 동부화재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다.

동부 측 관계자는 "동부화재는 그룹 금융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회사로 제조업 계열사와 엄연히 분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2014년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 감면 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방안도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일몰이 끝났다고 효과가 상실됐다면 없애야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파급력이 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현정기자 mrsjo@

먹음직한 딸기 수확 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경기도농업기술원 온실에서 기술원 관계자들이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는 방식인 다단식베드 끌안개 재배 기술로 생산된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609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	2	7	9	10	38	42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594,232,250
2등	5개 숫자 + 보너스 숫자	52,393,710
3등	5개 숫자 일치	1,114,851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81
2005년 1월 31일 등록(서울특별시 가00016)

신제품 쏟아내는 IT업계 "바쁘다 바빠"

신제품 출시주기 빨라져… 소비자 선택 혼란

"프로 라이트 액티브 라운드 그랜드 미니 탭S 키즈…" 암호명 같은 이 이름들은 삼성전자가 최근 1년 사이 출시한 갤럭시 시리즈들이다.

우리나라 IT 업계의 신제품 출시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IT 시장에서 '출시 란 단어는 하루가 멀다하고 등장한다. 경쟁사끼리 몇시간 간격으로 신제품을 내놓는 상황도 벌어진다.

단일 모델을 프리미엄형과 보급형으로 나눠 출시하는 사례가 게임 많다. 광대역 LTE-A 단말처럼 통신규격 변화에 따른 신제품 출시는 속명이 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짧으면 일주일, 길어야 두달 간격으로 새로운 디바이스 신작을 선보이고 있다. 태블릿PC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 프리미엄 태블릿 갤럭시탭S를 선보인 이후 일주일만인 지난 2일 광대역 LTE 태블릿 갤럭시 탭4를 출시했다. 지난해에는 가을에만 4개의 태블릿 신작이 나왔다.[표 참조]

최근 1년간 삼성전자 태블릿 출시 현황

출시일	모델명
2013년 04월 [illegible]일	갤럭시 노트 8.0
2013년 08월 22일	갤럭시 탭3 [illegible]
2013년 09월 25일	갤럭시 노트3
2013년 10월 01일	갤럭시노트 10.1 2014에디션
2013년 11월 [illegible]일	갤럭시 탭3 [illegible]
2014년 02월 [illegible]일	갤럭시노트 프로 12.2
2014년 [illegible]월 [illegible]일	갤럭시 [illegible]
2014년 06월 24일	갤럭시탭S 10.5
2014년 07월 [illegible]일	갤럭시탭4

이기에 통신사별, 기능에 따라 종류가 다시 나뉜다.

넓어진 선택권의 장점은 역설적으로 선택의 어려움을 낳는다. 구입한 신제품이 몇주 사이 구형 모델이 되거나 가격이 대폭 떨어져 있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비슷한 모델이 많다보니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할 지 혼란스럽다.

제조사의 고민도 깊어진다. 신제품 출시로 인해 기존에 판매하던 상품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카니발리어제이션'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제 살을 깎아 먹는 과정에서 제조사와 통신사 간의 알력,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은 악화되고 있다.

/양운혁기자 unique@

5월 건설수주액 7조

전년比 7.0% 증가

대한건설협회는 국내건설 수주 동향 조사를 통해, 지난 5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7조 935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7.0% 증가했으나, 지난 4월(9조1150억)대비로는 1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국내건설의 공공부문 수주액은 3조135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5.8%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도로교량(고성죽계~바산진천) 국도건설공사, 국도45호선 장평~간평2 도로건설공사)과 조경(행정중심복합도시3-2생활권조경공사)·치산치수(영천시 탄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부문에서 수주가 증가해 지난해 동기대비 14% 증가했다.

공공건축은 주거용 건축의 부진 속에 학교, 병원, 관공서 물량도 줄어들었으나 공장, 창고(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건축공사, 군산항 제7부두(7선석) 임항창고 증축공사)등의 작업용 건물과 터미널, 문화회관, 체육시설(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건립 건축공사, 보령종합체육관 건립공사)등의 주민편의시설의 물량 증가로 지난해 동기대비 57.0% 증가했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4조799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4% 감소했고, 전월대비로는 18.7% 감소했다. 토목공종은 철도와 상하수도에서 소폭의 물량증가가 있었을 뿐 여타 SOC물량과 기계설치, 조경부문 등 전 공종에서 크게 부진해 지난해보다 1조 2318억원 감소한 745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2.3% 크게 감소했다.

/김두희기자 kimdh@

환율 하락에 금리인하 기대감 '솔솔'

동결 우세 속 인하 전망도 점차 고개 들어

원·달러 환율이 6년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에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경기 진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가 7월에도 현 수준(2.5%)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금리 변동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된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올해 6월까지 13개월 연속 동결했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에도 금리 인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경제지표만 두고, 금리 인하를 강하게 추진하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한은이 4월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4.0%)를 3.7% 내외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2분기 후 수출이 개선되고 있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추진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7월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면 8·9월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투자심리 위축을 근거로 들며 "한은은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수소비가 둔화하면서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0.1~0.2%포인트 하향 조정할 것"이라면서도 "이 때문에 한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늦추겠지만 금리를 내리는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환율 하락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수출경기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 회복세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조만간 출범하면서 올 하반기 경기 부양에 올인 할 것으로 예상돼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다만 금리 인하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크고, 올 하반기에는 점차 물가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에 돈이 유동성이 확대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서 "금융당국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금리인하 카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마니쉬 레이치우드후리 BNP파리바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환율 하락과 경기 부진으로 한은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illegible]기자

삼성, 미국 오피스 시장공략 삼성전자가 미국 3대 사무용품 전문 유통 채널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마케팅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다우 17000선 돌파…"연말까지 호조 예상"

미국 증시가 오를 만큼 올랐다는 시장의 인식 속에서도 또 한 번 주동력을 발휘해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지표인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 고지를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완연한 회복 국면에 들어갔으므로 다우지수가 연내 더 오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미국의 출구전략 시기가 다가오면 주식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경제매체인 CNBC방송의 경제전문가 짐 크레이머는 "다우지수를 1만6000선에서 1만7000선으로 끌어올린 것은 캐터필라, 디즈니, 애플, 머스크, 시스코 등 5개 기업"이라며 "글로벌 경기회복 국면을 고려할 때 이들 기업의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다우지수가 연말까지 1만8000선을 넘을 것"이라며 "1만9000~2만선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시겔 교수는 연내 낙관론의 근거로 미국 연준의 저금리 기조를 꼽았다.

다만 미국이 내년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단행하면 증시가 향후 반년에서 1년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시겔 교수는 "다우지수가 2만~2만1000선까지 오른다면 단기적으로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은 조정받기 전 정상 가치보다 높게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우려는 인플레이션 여부다. 시겔 교수는 "낮아진 실업률이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유가가 더 오르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문제"라고 덧붙였다.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이는 규모를 점차 줄이고 있는 것도 고려 요인이다.

올해 1분기 S&P500지수 기준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154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장희종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연준의 통화완화정책과 기업의 높은 현금 보유 상황 속에서 저성장 국면의 미국 증시의 반등 동력으로 작용했다"며 "그러나 올해 2분기부터는 기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주가 확보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전매 제한 풀린 위례…'억' 소리

3000만원부터 1억원 가까이 웃돈 형성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속속 해제되면서 분양권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수도권 공공택지로 민영아파트의 경우 1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위례신도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프리미엄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일부터 매매가 가능해진 위례 엠코타운플로리체(A3-7) 분양권에는 4000만~5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5월까지만 해도 3500만~4000만원 선이던 프리미엄이 한 달도 안 돼 500만~1000만원 뛰었다.

작년 위례 열풍을 이끌었던 인기 아파트의 전매제한도 줄줄이 해제된다. 이달부터 성남시 위례힐스테이트(A2-12) 621가구와 래미안위례신도시(A2-5) 410가구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현재 이들 아파트에는 3500만~5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어 있다.

서울 문정동 M부동산 관계자는 "래미안 위례는 평균 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며 "전용면적 120㎡ 로열층의 경우 호가는 1억원 선이다"라고 밝혔다.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에 비해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호가가 오르는 추세다.

이어 9월과 10월에는 위례자이아파트(C1-3BL) 400가구와 송파와이즈더샵(C1-4) 390가구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 암암리에 거래되던 프리미엄 가격이 7000만~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프리미엄 상승세가 가파라지면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달 분양을 앞둔 위례신도시 A3-6b블록 '신안인스빌 아스트로'는 사전 단계보다 분양 문의가 2배가량 늘었다.

손종석 신안 홍보팀 이사는 "앞서 분양한 단지들의 프리미엄 가격이 치솟으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요즘 전화 문의가 하루 평균 100통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인근 W부동산 관계자는 "기존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붙다 보니 거래가 쉽지 않다"며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분양을 앞둔 신안인스빌 아스트로나 위례 자이 등 입지 좋은 분양 물량에 청약을 넣어보고 떨어지면 그때 분양권을 사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선옥기자

은행권, 미얀마 진출 초석다지기 한창

외국은행에 영업면허 발급…국내銀 가속화
"개도국 중 가장 늦게 개방, 성장가능성 무궁"

미얀마중앙은행이 오는 9월 외국은행에 국내 영업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은행들이 미얀마를 주시하고 있다.

미얀마중앙은행은 몇 개 외국은행에 면허를 발급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닫혀있던 국내 영업 면허가 허가되면 외국은행들은 지점을 설치하거나 현지 은행과 합작으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미 은행권에서는 미얀마를 두고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먼저 신한은행은 최근 미얀마 현지은행인 코-오퍼레이티브(Co-operative)은행과 포괄적 업무제휴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협약으로 양 은행은 송금·무역결제, IB부문 협력 강화, 직원교류 연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며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얀마는 아시아 개도국 중에서도 가장 늦게 개방된 국가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많다"며 "신한은행은 기존에 취급하던 미얀마 노동자·한국기업 송금 등의 업무와 더불어 미얀마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또한 미얀마 건설부 산하 주택건설개발은행(CHDB)과 업무협약을 맺고 미얀마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주택금융 관련 역량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주택건설개발은행은 국민은행의 미얀마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미얀마 ADB금융포럼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국내은행들의 미얀마 진출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미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하나·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 7곳의 은행들이 사무소 형태로 있었던 것.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올 초만 해도 한국수출입은행이 미얀마 양곤에 사무소를 열고 2017년까지 1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며 "그래도 사무소 형태로 있는 것보다 지점으로 전환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얀마 금융당국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계 은행에 지점설치를 허가해 주기로 하며 영업기금으로 최소 7500만 달러(약 766억원) 이상을 요구했다.

은행권에서는 다소 과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미얀마 지점 진출'이라는 먹거리를 쉽게 놓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지점 면허가 등을 위해 금융당국 또한 미얀마 금융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지난 달 미얀마를 방문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한·미얀마 ADB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 등을 만났다.

이 결과 신 위원장은 미얀마 재무부와 한국의 기업 CB(Credit Bureau)와 기업신용평가체계(Corporate Credit Rationing System)를 미얀마에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또 시스템 정착을 위해 미얀마 재무부에 정책자문관(신용보증기금 전문인력)을 파견키로 했다.

신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은행이 미얀마 지점에 대한 인·허가를 1개사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채신화기자 csh1028@metroseoul.co.kr

이통3사, '팬택 살리기' 어쩌나

채권단 경영정상화 조건부 가결…8일 결론

'팬택 살리기'를 두고 이동통신 3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팬택 채권단은 지난 4일 이통3사의 출자전환 참여를 조건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가결했다. 채권단은 이통3사에 출자전환 참여 여부를 8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채권단 측이 이날 조건부 가결을 강행한 것은 4일이 팬택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 마감시한이기 때문. 이통3사가 8일 자정까지 출자전환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반대 입장을 전하면 채권단의 의결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팬택은 재권 상환능력이 부족해 곧바로 법정관리 신청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는 팬택이 이번 고비를 넘기더라도 삼성전자·LG전자·애플·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회생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출자전환 결정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팬택이 파산할 경우 이통3사로서는 팬택 재고 휴대전화 물량 처분이 고민일 수밖에 없다. 파산 시 향후 팬택 단말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 지원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고 처리도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통3사의 고민이 깊어지자 휴대전화 상인들도 적극 나서 정부와 이통3사의 팬택 살리기 동참을 권유하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점과 대리점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팬택의 회생을 돕기 위해 팬택으로부터 받아야 할 판매 장려금 일부를 출자전환할 수 있다"며 "정부와 이통3사도 이 같은 팬택 살리기에 동참해 달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논의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워크아웃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기업에 대한 배려 조항은 신설해주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 같은 소상인들도 팬택을 살리기 위해 출자전환마저 검토하는데 정부와 대기업 이통사들이 손놓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수조원대 이익을 창출하는 대기업 이통사들과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해 팬택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 정부는 이를 외면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성기자 lyt403@

한화무역, 독거노인 돕기 한화무역 임직원들과 은평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5일 독거노인 돕기 나눔 활동을 끝낸 후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의 두번째 줄에서 오른쪽 네 번째가 박재홍 대표다. /한화무역 제공

'글로벌 IT 투톱' 구글·페이스북 동병상련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에 여론 뭇매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과 10억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SNS 페이스북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기업활동 중 발생한 문제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글은 대중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인터넷 사용자의 '잊힐 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정보삭제 조치에 나서면서다.

구글의 대응 조치로 유럽판 구글 검색서비스에서는 유명인에 대한 비판적 정보들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나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가 부유층과 권력자를 위한 '정보세탁'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고조됐다.

유럽 언론들은 최근 구글의 고객 요청 반영 조치로 비판적인 과거 기사들이 검색창에서 삭제되자 잊힐 권리가 언론 검열에 악용된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BBC는 무책임한 투자로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스탠 오닐 전 메릴린치 최고경영자를 비판한 경제담당 부장의 2007년 블로그 링크를 차단했다는 통보를 구글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1999년 변호사협회장으로 선임된 로버트 세이어의 악행을 비판한 내용 등 기사 3건이 차단됐다고 공개했다.

미국 사생활 보호 단체 전자 사생활 정보센터(EPIC)는 감정 조작 실험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페이스북을 미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정식 제소했다.

페이스북은 최근 이용자 허락 없이 감정변화를 연구해 사용자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FTC는 "페이스북의 약관에는 이용자의 데이터가 실험에 사용 될 수도 있다는 문구가 전혀 없었으며 이용자들에게 그들의 개인적 정보가 연구원들에게 공개 될 것이라고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성훈기자 zen@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 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귀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와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늦어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주)의 개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정원씨(5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다 똑같나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얻었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보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어떤때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한만 앞서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의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 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1 원작의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 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본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보험사기 피해땐 방관 말고 신고해야"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지난해 적발금액 5190억··4천여명에 23억 포상금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 주제는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기는 허위·과장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타내는 수법으로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얼핏 보험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됩니다.

적은 액수라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기보다 의심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금감원 또는 관련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보 사항을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면 포상금도 주어집니다. 지난해에만 제보자 4000명에게 23억154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보험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A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17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이후 과거 질병을 핑계로 병원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A는 이런 수법으로 무려 1470일 동안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A가 실제로 받은 치료는 통원치료에 불과했다. 상해나 질병은 과장해 병원에 장기입원한 것처럼 꾸며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한 보험금을 챙긴 것이다.

위의 사례는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2년 부산에서 이와 같은 사례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A와 같은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의무도 생깁니다.

이 밖에 최근 빈발하는 보험사기 유형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제보 357건 가운데 '허위·과다 입원환자'가 전체의 34.7%를 차지했고 '과장청구 의심병원'이 10.9%로 집계됐습니다.

나이롱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도 보험사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무려 7만7112명, 금액은 5190억원에 달합니다.

보험종류별 사기 유형을 보면 자동차보험은 음주·무면허 운전자 바꿔치기가 1218억원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했고 사고내용 조작도 867억원으로 16.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살·자해하거나 살인·상해 등 고의로 사고를 내는 강력범죄 적발금액이 1025억원으로 1년새 26.8%나 급증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알아 차리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적발한 금액은 전체의 78%인 4052억원으로 1년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감원의 기획조사나 일반인 제보, 보험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공조해 잡아낸 보험사기 금액도 1138억원에 이릅니다.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보았다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관련 보험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정리=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비관론으로 봐도 하반기 '긍정적'

금융가 사람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좌우하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3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베어 컨센서스 기준으로 올해 하반기 코스피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8.34%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 컨센서스는 애널리스트 추정치의 평균 값을 사용하는데 반해 베어 컨센서스는 최저값을 컨센서스(시장 예상자 평균)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비관론자의 눈으로 봐도 하반기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라면서 "2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더라도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 들어 베어 컨센서스가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은 디스플레이와 화장품·의류 업종이다. 이들 업종이 하반기에 강한 실적 개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로 이들 업종은 올해 주가 상승도 두드러졌다. 주간 단위로 코스피 저점이었던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디스플레이는 22.9%, 화장품·의류 2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베어 컨센서스의 상향 조정된 폭은 디스플레이 36.5%, 화장품·의류 17.7%였다.

화장품 업종의 경우 중국 모멘텀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온라인화가 가속화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브랜드샵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 변화에 따른 업체별 위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올해는 이익이 성장하거나 실질 조정되는 업종은 희소하다"며 "이 때문에 이들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illegible]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3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 코스피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8.34%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진영기자 son@

롯데百, 비키니 패션쇼 롯데백화점은 프렌치위크를 맞아 오는 13일까지 프랑스 수영복 브랜드의 최신 상품을 선보이는 비키니 패션쇼를 연다. /연합뉴스

장마 비수기에도 분양시장 후끈

주간 분양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분양시장도 비수기로 접어들어야 하지만 당분간 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상반기 분양을 마무리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막판 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13곳, 당첨자 발표 8곳, 당첨자 계약 14곳, 견본주택 개관 5곳 등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삼성물산은 7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래미안 용산' 오피스텔의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42~84㎡ 782실 중 597실이 일반분양된다. 이어 9일에는 아파트가 1순위 공급에 들어간다. 135~181㎡ 195가구 중 16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세종시에서는 9일 중흥건설이 3-2생활권 M6블록에서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반도건설이 1-4생활권 H1블록에서 '세종 반도유보라'의 청약을 받는다.

이날 대전 대전관저5지구 A1블록에서 LH가 국민임대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삼도주택과 한림건설은 경북 포항시 장포동 장포지구 메트로시티1·2단지 청약을 진행한다.

효성은 10일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공급하는 '서산 예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의 청약을 접수한다. 59~84㎡, 총 608가구다.

같은 날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에서 '목감 한양수자인', 대구 수성구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오피스텔, 광주 북구 용두동 '양산지구 진아리채' 청약접수가 실시된다.

11일에는 포스코건설이 서울 강남구 세곡2지구 3단지 '강남 더샵 포레스트'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114~244㎡, 총 400가구로 구성된다.

KCC건설도 경기 이천시 증포동 '이천 설봉 KCC' 견본주택의 손님맞이를 계획 중이다. 59~84㎡, 총 562가구 규모다.

이밖에 대구 달서구 장기동 '월성휴포레', 충북 청주시 복대동 '지웰에스테이트',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1-C4블록 '천안불당 호반베르디움2차' 견본주택도 이날 개관을 예정하고 있다.

/박선옥기자 psoq1920@

미니 쿠퍼, '운전의 즐거움'을 말하다

실내 넓어지고 편의장비 '풍부'
최고출력 14마력으로 높아져

임의택의 차차차

■ 미니 쿠퍼

국내에서 작은 차의 인기는 높지 않다. 세금과 각종 혜택을 받는 경차만 조금 인기가 있을 뿐이고, 수입차 시장에서는 작은 차가 더 외면받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존재가 하나 있다. BMW 그룹 산하의 미니(MINI)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2005년 국내에 상륙한 이후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초반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6.3% 포인트 증가한 6301대가 판매됐다.

미니는 이 여세를 몰아 올해 4월에 3세대 미니 쿠퍼 해치백을 선보였다. 2세대 모델에 비해 주된 차이점은 커진 차체와 다운사이징 된 엔진이다. 쿠퍼 해치백의 길이×너비×높이는 3821×1727×1414mm로, 2세대보다 98mm 길어졌고 44mm 넓어졌으며 7mm 높아졌다. 휠베이스(앞뒤 축간 거리) 또한 28mm 늘어난 2495mm로 커졌다. 커진 차체로 인해 1세대나 2세대 모델의 작고 앙증맞은 분위기는 많이 없어졌으나 대신 넓은 실내공간을 얻었다. 앞좌석 조절 범위가 커졌고 뒷좌석 레그룸은 19mm가 커졌다. 트렁크 용량도 구형보다 늘어 211ℓ로 커졌다.

실내에서는 달라진 대시보드가 눈길을 끈다. 피중시계 같았던 센터 모니터는 속도 정보를 운전석 앞의 클러스터에 양보하고, 대신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정보 전달 기능을 강화했다. 쿠퍼 S와 쿠퍼 하이트림에 있는 'MINI 커넥티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드라이빙 엑사이트먼트, 미니멀리즘 분석기, 다이내믹 뮤직, 소셜 네트워크(페이스북, 트위터, 포스퀘어 등), RSS 뉴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주변을 감싸는 LED 링은 드라이브 모드나 공조장치 등을 조작할 때 컬러가 수시로 바뀌어 탑승자의 눈을 즐겁게 한다. 최상위급인 미니 쿠퍼S에는 자사 최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장착된다.

센터페시아 아래쪽에 달린 '하트비트(Heart Beat)'라고 불리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엔진이 깨어난다. 푸조와 공동 개발한 기존의 4기통 1.6ℓ 엔진을 버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엔진은 다운사이징의 '모범답안' 같다. 요즘 잘 쓰지 않는 3기통을 채택한 데다 1.5ℓ로 배기량을 줄였으면서도 최고출력은 오히려 14마력 늘어난 136마력을 낸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엔진에 3기통을 쓰지 않는 이유는 파워가 떨어질 뿐 아니라 진동·소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3세대 미니 쿠퍼는 실제 주행에서 매우 파워 넘치는 가속감각을 보여준다. 과거 크라이슬러, 푸조와 공동 개발했던 엔진들과 비교하면 새 엔진은 BMW와 미니의 브랜드 이미지에 더 잘 어울린다.

변속기 옆에는 미드(MID), 스포츠(SPORT), 그린(GREEN)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드라이빙 모드가 마련됐다. 각 모드는 도로상황이나 운전자의 취향에 화답할 수 있도록 차이가 명확하다. 특히 스포츠 모드의 박진감 넘치는 반응이 안성맞춤이다.

통통 튀던 주행감각은 3세대로 넘어오면서 부드럽게 순화됐다. 고카트(Go Kart) 같은 주행성능은 여전하지만 노면 요철을 만났을 때 이를 한 번 걸러서 탑승자에게 전달해준다. 미니 쿠퍼 특유의 주행감각이 희석된 것 같아 아쉽긴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세팅이다.

연비는 도심 12.9km/ℓ, 고속도로 17.5km/ℓ, 복합 14.6km/ℓ로 배기량을 낮춘 덕에 상당히 좋은 편이다. 시가지와 간선도로를 4:6의 비율로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12.0km/ℓ를 기록했다.

3세대 미니 쿠퍼는 2990만원부터 시작해 쿠퍼 하이트림 3720만원, 쿠퍼 S 4240만원이고 하반기에는 디젤 모델이 추가될 예정이다. 가격대로 보면 폭스바겐 골프, 푸조 308, 시트로엥 DS3, 아우디 A3,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 등이 경쟁상대다. 이들 사이에서 미니 쿠퍼는 개성과 존재감 면에서 단연 최고다. 하반기에 들어올 디젤 모델도 기대된다.

/임의택기자 ferrari@metroseoul.co.kr

3세대 미니 쿠퍼는 승차감이 부드러워졌고, 각종 편의장비를 보강해 운전이 더욱 즐거워졌다.

▲한 줄 평가: 배기량을 줄였지만 주행성능은 더욱 좋아졌다 ▲평점: ★★★★(만점은 별 다섯 개 기준)

<국산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쉐보레	올란도	-	-	1,560	1,630	1,840
기아	쏘렌토R	1,800	1,820	2,030	2,260	-
	뉴 카렌스	920	900	1,040	1,400	1,460
	카니발R	-	1,800	2,130	2,400	2,630
르노삼성	QM5	1,480	1,790	1,930	2,130	2,410
현대	투싼ix	1,570	1,700	1,690	1,930	2,070
	싼타페CM	1,590	1,730	1,920	2,150	2,800
	베라크루즈	2,150	2,340	2,650	3,100	3,560
	스타렉스	1,320	1,430	1,570	1,650	2,030
쌍용	코란도C	-	-	1,650	1,770	1,960
	렉스턴	1,630	1,790	1,850	2,180	-

참고자료: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Issue&View 상반기 점검

/임의택기자 ferrari@metroseoul.co.kr

전기차 시장 초반 승자는 누구?

기아차, 레이 EV·쏘울 EV로 121대 판매 1위 등극
르노삼성 SM3 ZE, 한국GM 쉐보레 스파크 順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시판되기 시작한 전기차가 서서히 인기를 얻고 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판매량을 보면 기아차가 레이 EV와 쏘울 EV(사진)를 앞세워 121대를 판매했고 르노삼성 SM3 Z.E.가 69대, 한국GM 쉐보레 스파크는 18대가 팔렸다. 수입차인 BMW i3는 6월까지 33대가 판매됐다.

업체들은 제각기 강점을 내세워 수요자를 공략하고 있다. 기아차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차데모 충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상반기 제주자치도 전기차 보급사업 공모에서도 전체 신청자 1635명 중 589명이 쏘울 EV 구매를 희망할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르노삼성의 SM3 Z.E.는 504명이 구매를 희망했고, BMW i3(247명), 기아차 레이 EV(159명), 닛산 리프(97명), 한국GM 쉐보레 스파크 EV(38명)가 뒤를 이었다. 구매 희망비율에 따른 차종별 보급 대수는 쏘울 EV 86대, SM3 Z.E. 79대, i3 30대, 레이 EV 20대, 리프 15대, 스파크 EV 5대로 총 235대다.

르노삼성 SM3 Z.E.는 지난해 환경부 민간 보급 전기차(780대) 중 가장 많은 453대가 판매된 차다. 비교 차종 중 유일한 세단형 승용차인 데다 배터리 급속교환 시스템도 유일하게 채택해 택시나 카쉐어링에 적합하다는 평이다. AC 급속 충전 방식 사용도 이 차가 유일하다.

쉐보레 스파크 EV는 출력이 높지만 차체 크기가 가장 작다. 경차와 전기차 지원을 2중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작은 차체는 약점으로 지목된다.

BMW i3는 독특한 스타일과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가 강점이다. 반면 국내에서 보급이 적은 콤보1 충전방식을 쓰는 게 약점이다. i3와 스파크 EV가 사용하는 타입1 콤보 방식은 국내 표준인증 통과가 늦어서 충전기가 별도로 설치돼 있다. 반면 차데모 방식과 AC 급속 충전 방식은 함께 설치된 경우가 많다.

한편 하반기에는 닛산 리프 전기차가 가세하고 내년 초에는 폭스바겐의 e-골프가 국내에 상륙할 예정이어서 전기차 판매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건보 혜택 수혜자 '공무원'

뉴스룸에서
정 원 일
<생활경제부 차장>

공무원의 건보료 단점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벌어지는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건보공단 관계자들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된 그동안의 경과와 쟁점사항을 보고받는 등 현황파악에 돌입했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이 연금매장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으며 월정 직책급은 기업체 직원들의 직책수당과 비슷하다. 또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방호·치안 등의 특정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준다. 2013년 기준으로 55개 정부부처와 기관에 배정된 예산은 총 65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각종 수당에 건보료를 적용시켜 왔는데 공무원만 제외하면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이 가중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준비한 일이지만 난관은 많다.

이런 시도는 2010년에도 있었다. 당시 건보공단은 공무원과 교직원 사업장 1900여 곳을 지도점검해 월정 직책급 등을 건보료 산정에서 빼서 건보료를 적게 낸 사실을 적발해 총 1140여개 사업장 9만2000여명에게 76억여 원의 건보료를 환수했다.

공무원 사업장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2011년 2월 복지포인트 등이 복지후생비이자 작접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경비'로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보수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2011년에도 당시 진수희 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포인트 등을 건보료 산정에 적용시키는 것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른바 힘센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체면만 구겼다.

공무원 건보료 특혜 관행은 안행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과 기재부의 예산 지침을 고쳐야 하는 등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고 공무원의 임금 수준과 과세체계와도 직결돼 해결책 마련은 묘연한 상태다.

몇몇 공기업과 고위 공직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체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형평 과세를 전제로 고통분담이나 건보재정 확보냐의 문제를 떠나 건강보험이 공무원 당사자는 물론 그의 가족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임을 직시한다면 해답은 명확해진다.

시진핑 주석의 '無信不立' 메시지

정론탁설
유 병 팔
<언론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주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박근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차원 높은 동반자 관계를 다졌다. 우선 전례를 깨고 북한보다 먼저 우리나라를 선택했다. 정상회담 내용도 알차다.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핵개발을 확고히 반대했음은 물론 광복 70주년이 되는 내년에 한·중 항일 기념식 공동개최까지 제안했다.

아울러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연내 타결은 물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개설, 영사협정 타결, 비자면제 확대, 미세먼지 감축, 재난구조 협력 등 두 나라 관심사항을 공동성명에 거의 담았다.

이제 한·중 두 나라는 수교 스물두 돌을 맞아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러한 가운데 시주석은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다. 바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논어의 안연편(顔淵篇)에 실린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신뢰를 강조했다.

무신불립은 "믿음이 없으면 살아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자공(子貢)이 정치에 관해 묻자 공자는 "식량을 충족케 하고(足食) 군대를 충분히 하고(足兵)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民信)"라고 답했다.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하느냐고 되묻자 군대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포기해야할 경우를 묻자 이번에는 식량이라고 답하면서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고 했다. 바로 백성의 믿음을 가장 중시했던 것이다. 이 말을 시주석은 언론기고를 통해 한·중 관계 신뢰외교의 기둥으로 삼았다.

이에 앞서 시주석은 지난해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특별히 친필 서예작품을 선물한 일이 있다. 당 나라 왕지환(王之渙)이 지은 5언 절구 4행시인 등관작루 내용 중 뒷부분인 "욕궁천리목(欲窮千里目) 갱상일층루(更上一層樓)-천리를 보고 싶으면 누각을 한층 더 올라야한다"는 내용이다. 풀이하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꿈을 키우자면 한 차원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를 특히 마오쩌둥이 즐겨 암송했다고 한다.

논어의 무신불립과 등관작루의 시를 시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주요 메시지로 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국민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권은 무신불립의 정치철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포토프리즘 — "가만히 있으라!"

지난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에서 '가만히 있으라' 주도로 모인 학생들이 정부의 세월호 사건 후속처리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있다. 침묵행진을 제시했던 용혜인(24) 여씨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제대로된 쟁점이 보도되지 않는 상황에 다시 길거리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손진영기자 son@

11월 13일 '물수능'…수험생 어려움 가중

기자수첩
윤 다 혜
<정치사회부 기자>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3일에 실시한다는 '2015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이 6일 발표됐다. 수능 세부계획 발표로 수험생을 비롯해 고교·학원가 등은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올해 수능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6월 모의 수능은 3만명 넘는 영어 만점자가 속출하는 등 '물수능' 논란을 키웠다. 만점자 비율이 5.37%로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을 받는 등 변별력을 내지 못했다. 또 국어 B형은 제외한 국어 A형, 수학 A/B형도 지난해 수능 때보다 쉽게 출제됐다.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의 경우 종종 과목간 난이도에 따라 최고점의 편차가 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이번에는 사탐은 과목간 최고 8점 과탐은 과목간 최고 11점의 차이로 지난해 6월 모의 수능보다 과목간 점수가 다소 줄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11월 13일 치러지는 실제 수능에서도 영어의 난이도는 얼마간 오르겠지만 정부의 쉬운 수능 정책에 따라 전체적으로 여전히 쉬운 수준으로 출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탐구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현상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영어 과목의 변별력이 낮아 국어, 수학, 탐구 등에서 수험생들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쉬운 수능으로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정책과는 달리 수험생들은 영어에 만점을 맞고 상대적으로 중요해진 수학, 국어 등 다른 과목에 매달려야 하는 어려움만 가중됐다. 탐구 영역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과외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상상력과 비판 의식

인문학 산책
김 만 용
<성공회대 교수>

"달도 떨어지는가?" 뉴턴의 질문이었다. 사과 이야기는 지금껏 유명하나 '달의 낙하'에 대한 뉴턴의 생각은 일반에게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파격적인 발상은, 당시의 세계관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었다. 천체의 운동은 중력 같은 지상의 법칙과는 무관하다고 여기는 시대에 뉴턴은 이걸 우주로까지 확장했다.

달은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지만 지구는 자전하는 곡면이기 때문에 낙하운동이 상쇄된다는 것이 그의 논지였다. 결국 달은 지구를 향해 계속 낙하하지만 궤도를 도는 위성처럼 움직이는 셈이다. 17세기에 살았던 뉴턴의 이러한 상상과 계산의 앎지는 이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원리의 출발점이 된다. 이 뉴턴의 이론은 이후 우주의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 한계가 드러난다.

태양이 있는 자리는 그 태양의 존재 때문에 움푹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경사면을 따라 지구가 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빛도 그 휘어진 면을 따라 경로가 생겨난다. 이 이론 이전에 아인슈타인은 이제는 상식이 된 시간의 속도가 가진 상대성과 함께, 물질이 원자의 분열로 에너지로 바뀌고 거주보도 가능하다는 것을 규명해냈다. 이렇게 되면 바윗덩어리도 빛나는 광선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엄청난 발상의 혁명이었다.

그런데 하이젠베르크는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알지 못한다고 해서 다시 충격을 주었다. 물질운동의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고 본 아인슈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였다. 그러나 원자 크기 이하의 영역에서는 측정을 위해 광자를 쏘는 순간, 관찰하려는 대상의 움직임은 교란되어 그 위치가 달라지고 만다. 측정 자체가 불확정적인 상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인간사회도 다르지 않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나의 행동은 이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끊임없이 달라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상상력에 의해 인식하는 방법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져 온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비판과 수정이 금지된 도그마가 될 수 없다. 우주의 법칙에 대한 과학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인간사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기존질서를 뛰어넘는 상상력과 비판의식은 그래서 모든 교육의 핵심가치다. 이걸 억압하는 정치와 교육은 '중세(中世)'의 감옥일 뿐이다.

"식물 영양소, 항산화에 도움"

권오란 이대 교수 '뉴트리라이트 80주년 기자간담회'서 발표

식물 영양소가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등 한국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오란(사진)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 더 플라자에서 열린 '뉴트리라이트 창립 8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식물 영양소 함유 종합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의 항산화 가능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임상연구는 뉴트리라이트의 대표 제품인 '더블엑스(Double X)'의 항산화 가능성을 입증한 것으로 25~69세의 한국인 89명이 대상이다.

식물 영양소를 함유한 종합 비타민·무기질(더블엑스) 섭취군과 대조 물질 섭취군으로 나누어 8주간 이어진 연구에서 권 교수는 총 4가

지의 바이오마커(항산화 물질 지표·DNA 손상 지표·지질 손상 지표·내적 항산화 방어 시스템 지표)를 측정했다. 그 결과 더블엑스의 권장 수준 섭취는 DNA 손상과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적 손상 감소에 도움이 됐으며 내적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활성성 또한 정상적으로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종합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의 권장 수준 섭취가 산화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손상을 감소시키고 신체의 항산화 방어 체계를 유지시킨다는 가설을 입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트리라이트는 1934년 북미 최초로 종합 비타민·무기질을 출시한 후 80년간 식물 영양소 연구와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연구소와 자사 농장·제조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혈우병 치료제 '진타'

바이러스 유입 최소화…선진국도 인정

시크릿 노트

감동 실언의 영화 '통증'에서 이자 주인공(정려원 역)은 한 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아 작은 통증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받는 인물이었다. 피가 나면 금방 멎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게 선천적으로 혈액응고인자가 결핍된 '혈우병' 환자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혈우병 환자들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심한 상처는 물론 아주 작은 타박상만 입어도 근육·관절 등에서 통증을 동반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0명 정도가 혈우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제8 응고인자가 결핍된 혈우병 A 환자가 전체 혈우병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혈우병 치료를 위해서는 부족한 혈액응고인자, 즉 혈우병 치료제를 꾸준히 투여해야 한다. 안전성과 효능, 편의성의 삼박자를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치료제를 지정하기도 한다.

영국·호주 등 7개 나라에서는 혈우병 A 치료제로 화이자의 '진타(사진)'를 국가 단위 치료제로 지정하고 있다. 혈우병 환자들은 치료제를 정기적으로 주입하기 때문에 B형이나 C형 간염, HIV 등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진타는 진보한 혈우병 치료제로 꼽힌다.

이 제품은 제조공정 전 과정에서 사람과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을 배제했으며 '합성 펩타이드 친화성 리간드'를 사용해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성을 줄였다. 또 감염물질 제거를 위해 두 번에 걸친 정교한 정제기술을 더했으며 용매 세제 나노여과법을 추가로 적용했다.

더욱이 진타는 편의성에서도 발전하고 있다. 원래 혈우병 치료제는 주사제와 치료제를 재구성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다. 진타는 이 과정을 안전하고 간단하게 줄인 'R2 키트(Rapid Reconstitution Kit)'를 도입해 별도의 재구성 과정 없이 한 번에 용제와 바이알을 섞을 수 있는 '올인원 타입'의 제형 출시를 준비 중이다. 또 필요량에 따라 용량도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한편 현재 진타는 유럽과 미국·캐나다·중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화이자는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 진타의 출혈 억제 효과를 꾸준히 입증해 왔다.

/황재용기자

피부 얼룩덜룩해지는 '어루러기' 조심

건보공단, 고온 다습한 여름에 환자 늘어

여름철에는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는 '어루러기'를 조심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어루러기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진료 인원이 7만3069명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남성이 4만9471명, 여성이 2만3598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1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근 밝혔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비율이 전체 진료 인원 중 60.6%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루러기로 병원을 찾은 진료 인원을 월별로 살펴보면 기온이 높은 여름철(6~8월)에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준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기후로 어루러기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내의 등 환기가 잘 되는 옷을 입고 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루러기는 말라세지아 효모균에 의한 표재성 피부 감염으로 이 균은 지방 성분을 좋아하고 모낭에 상재해 모공을 중심으로 병변이 시작된다.

/황재용기자

종근당건강, '생생한인지력1899' 출시

인지력·기억력 개선 도움…콩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안전성 확보

종근당건강(대표 김호곤)이 인지력과 기억력을 개선하는 두뇌 건강기능식품 '생생한인지력1899'를 출시했다.

뇌세포의 구성 성분인 '포스파티딜세린'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제품은 항산화 성분인 '토코페롤(비타민E)', 뇌혈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와 '마늘유' 등을 포함하고 있는 두뇌 멀티케어 제품이다.

특히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세포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보호해 주는 역할과 함께 뇌세포 신경 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활성화시켜 노화로 인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실제로 포스파티딜세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지력 개선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인지력 개선과 치매 예방에 대한 효능을 허용했다.

또 회사는 콩에서 주성분을 추출해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며 제품을 통해 간단하게 두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은 NS홈쇼핑 및 NS몰에서 구입 가능하다.

한편 제품명의 1899는 '18세의 기억력을 99세까지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의 080)577-3308

/황재용기자

연령별 유방 건강법 발표

이대목동병원, 여성 스스로 건강 유지 노력 필요

이대목동병원이 연령별 유방 건강법을 발표했다.

건강법은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라는 주제로 병원이 전개하는 여성 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먼저 병원은 건강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시기인 10~20대에는 유방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섬유선종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섬유선종은 가장 흔한 유방 양성종양으로 유방에 구슬 같은 혹이 만져진다면 조직 검사 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30~40대는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로 유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초음파 등의 기계 검사로 유방의 이상을 발견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 스스로 유방암을 확인하는 자가진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40~50대는 정밀 검진을 통해 유방암의 조기 발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엄우성 이대목동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 교수는 "유방암은 다른 암과 달리 자가진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폐경 이전이면 매월 생리 직후 자가진단을 통해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질 때는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노마족' 위한 다이어트 식품들 인기

건강하고 아름다운 중년 여성 겨냥 저칼로리 식품 '봇물'

최근엔 건강 식단 관리로 다이어트를 병행하며 젊음을 유지하려는 중년층이 늘고 있다. 여기에 바캉스 시즌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아줌마가 아니기를 꿈꾸는 이른바 노마족(No More Aunt) 사이에서는 칼로리는 낮지만 영양분을 함유한 간편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외모·패션 등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자신을 가꾸려는 중년 여성 중인 노마족은 20·30대 못지않게 열심히 운동하며 건강관리와 체력 단련에 신경을 쓰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 다이어트 관련 식품을 가장 많이 찾는 연령층으로 40대가 꼽혔고(36.7%), 건강은 물론 다이어트도 기대할 수 있는 자연거를 즐기는 40대 여성이 지난해보다 125% 이상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식·음료업계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노마족을 위한 다이어트 식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일가홍푸드는 체지방 감소는 물론 피부건강과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삼중 복합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인 '롱비다 슬림앤 플러스 뷰티'를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내장지방과 복부지방 등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HCA)가 1200㎎이 함유돼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또 배변활동을 돕는 식이섬유(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와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베타카로틴도 들어 있다.

CJ제일제당은 다이어트 음료 '팻다운'을 발전시킨 '팻다운 아웃도어'를 최근 선보였다. HCA 750㎎에 나이아신(비타민 B3), 필수아미노산을 더해 체지방 감소와 에너지 공급까지 신경 쓴 건강기능식품이다. 이 제품은 열량을 기존 제품 45㎉에서 0㎉로 낮췄다.

현대약품은 자몽 향이 첨가된 저열량 식이섬유 음료 '미에로화이바 레드'를 내놨다. 저칼로리(15㎉), 저당류(0g) 음료다. 칼로리에 대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오렌지색이던 기존 미에로화이바의 브랜드 컬러를 열정과 젊음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바꿨다.

웅가의 '웅가 오리지널 콘칩'은 무농약 인증을 받은 국산 옥수수와 유기농 팜유(야자과의 열매에서 짜낸 기름), 구운 황토 소금 등 엄선된 원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 이 제품은 가공유지(쇼트닝) 대신 유기농 팜유를 사용해 트랜스지방이 제로(zero)이며 식이섬유를 1.5% 첨가했다.

고구마는 밥보다 칼로리가 적으면서도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는 장점이 있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에게 식사대용으로 인기가 있다. 정정원의 '고구마츄'는 신선한 고구마를 바로 쪄 첨가물 없이 그대로 말린 고구마 스낵이다. 설탕과 합성 감미료 사용 없이 100% 고구마로 만든 자연 건강 간식으로 고구마 본연의 단맛을 쫀득쫀득한 식감과 함께 즐길 수 있다. 파우치 1회 분량만으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식사대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정해성기자 pms@metroseoul.co.kr

나눔인, '장례도우미 사업' 주목

최근 나눔인의 장례도우미 서비스가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장례식장에는 근조화환을 보내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나눔인에서는 근조화환 대신 장례도우미를 보내 상중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장례도우미 서비스는 근조화환의 재활용 문제를 해소하고 진심 어린 전격 서비스로 상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나눔인 강원구 대표는 "실제로 장례식장에 가보면 상주들이 음식을 서빙하느라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조화환 대신 2~4명의 도우미를 보내면 가족들의 일손을 더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서비스는 여성 일자리 마련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 2만명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눔인은 현재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에 30개의 사업단 체제로 운영되어질 예정이다. 지역 장례도우미는 해당지역 일자리센터와 나눔인 홈페이지를 통해 본사에서 직접 모집하고 있다. /박재현기자

"땀과 열기로부터 발을 편안하게…"

금강제화 '랜드로바 고어텍스 서라운드' 착화기

"정말 쾌적하면서도 멋있게 신을 수 없을까?"

매년 이맘때면 오랜 시간 슈즈를 신고 다녀야 하는 남성들은 발에서 나는 열기와 땀 때문에 고생을 한다. 그렇다고 자신만 편하자고 샌들 등을 신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강제화가 아시아 최초로 고어(Gore)사의 신기술인 고어텍스 서라운드 기능을 접목한 제품을 출시해 이목을 끌었다.

이 신발의 겉모양은 대부분의 기능성 슈즈들이 기능에만 치중해 멋스럽지 못한 투박한 디자인 일색인 반면 남성들이 선호하는 보트슈즈 스타일에 브라운과 옅은 청색 컬러로 비즈니스 룩과 캐주얼 룩 등 활용 폭이 넓겠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특이 한 것은 처음 보는 슈즈 밑창이다. 신발 내피에만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한 일반 고어텍스 슈즈와 달리 이 제품은 통기성을 높이기 위해 바닥 창을 편칭 처리하고 방수·투습 기능이 뛰어난 고어텍스 멤브레인 소재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신발 바닥으로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우려됐지만 '프로텍티드 레이어'라는 견고한 망사 소재가 삽입돼 발바닥을 보호하도록 제작됐다.

본격적으로 슈즈를 신어봤다. 우선 착용감이 매우 편했다. 맘창의 굴곡성이 뛰어나 보행 때 편안하고, 볼포 소재 사용으로 일반 구두에 비해 무게도 가벼운 동시에 쿠션감도 좋았다. 무엇보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낮 기온으로 달궈진 도심 속 거리를 1시간 이상 걸어도 발에 땀이 차지 않았다.

최근 변덕스러운 날씨에 편칭처리 된 바닥 창으로 물이 샐 것"이라는 우려를 안고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몇 번이다 걸었지만 물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실로 들어와 투습 기능 확인을 위해 계속 신고 있었지만 신발 안쪽이 눅눅해지거나 답답해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처음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투습과 방수라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갖췄다는 것에 신기해하던 것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쾌적함과 편안한 착화감이 인상적이었다.

/정해성기자

코데즈컴바인, 카페 도우도우와 협업

코데즈컴바인이 카페 도우도우와 이벤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한다.

코데즈컴바인은 최근 부산대점의 2층과 3층을 카페 도우도우의 매장으로 꾸며 새롭게 오픈했다. 회사 측은 향후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도우도우의 커피 무료 시음회 및 바리스타 강연회를 열고 휴식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부산대 콜라보레이션 매장 오픈을 기념해 코데즈컴바인 부산지역 7개 매장에서 5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 고객에게 카페 도우도우와 무료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물병·도시락통 '스타일'을 입다

최근 물병, 도시락통 등을 패션 소품처럼 활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스타일'을 입은 리빙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 제품의 기능성에만 집중하던 소비자들이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월드키친 스냅웨어 '에코플립 물병'은 블루·그린·오렌지 등 총 3가지 컬러로 구성됐다. 산뜻한 색상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최근 미국 2014 하우스웨어 디자인어워드에서 그린하우스 부문 올해의 최고의 제품상을 받았다.

디저트 카페 망고식스는 일본의 '마이보틀'과 같은 소재로 제작한 '식스보틀'을 출시했다. 투명한 용기에 심플한 외관으로 젊은 여성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친환경 소재 트라이탄으로 만들어 실용성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락앤락의 '미니런치 글래스'는 장기 불황으로 늘어난 직장인 도시락족을 겨냥한 제품이다. 컴팩트한 사이즈에 세련된 디자인을 기본으로 보온·보냉 효과가 있는 기능성 소재로 만들어졌다. /배지현기자

SCREEN
FINAL 시즌 | 하드코어 섹시 뱀파이어 시리즈
트루블러드7
7월 10일 목요일 밤 10시 첫방송
SCREEN NEW SERIES
NEW 시즌 | HBO 미스터리 스릴러
레프트오버

"TV 속 주인공처럼…" PPL(간접광고) 판촉 뜨겁다

보통 소비자들은 TV방송이나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내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소품이나 장소들은 동경의 대상이 된다. 또 사고 싶은 물건이나 해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들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상품들이 간접광고(PPL, Product PLacement)를 통해 방송에 노출되면 '대박'을 터트리기가 쉽다.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영화 속의 PPL은 시청자들에게 저항감 없이 무의식적으로 제품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기업들은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자사의 상품을 방송에 노출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얼마전 종영된 SBS의 '별에서 온 그대'다. 이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극 중 등장했던 전지현의 명품식 립스틱이 국내는 물론 중국 현지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중국에선 드라마 방송 후 국내 브랜드 치킨 매장에는 치킨과 맥주를 맛보려는 인파로 장사진을 이루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저녁이면 단체로 이름난 치킨집을 찾아 음식을 즐기는 것이 저녁 정규 코스로 자리잡기도 했다.

최근 마케팅 전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PPL의 단면을 살펴본다.

관찰형 예능 인기에 방송 속 인테리어가 이슈
브랜드 콘셉트·제품, 자연스럽게 노출 효과

스타들의 숨겨진 일상과 진솔한 모습을 담은 관찰형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방송 속 출연자들이 생활하는 숙소의 인테리어가 이슈가 되고 있다. 방송 속 인테리어들은 협찬으로 제공되는 가구와 소품들로 구성된다. 최근 많은 가구업체들이 영화, 드라마 중심 협찬에서 관찰형 예능 프로그램으로 보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한 가구업체 관계자는 "드라마는 한정된 숫자의 카메라로 촬영하기 때문에 완벽한 세팅이 필요하지 않고 세트장 자체도 인위적인 느낌이 난다"며 "반면 여러 대의 카메라로 집 안 구석 구석을 보여주는 관찰형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사람이 실제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체 실내 인테리어를 꾸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데다가 가구와 소품의 노출 비중이 드라마보다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소녀시대 제시카와 f(x) 크리스탈 자매의 솔직한 일상을 보여주는 온스타일의 '제시카 앤 크리스탈'에는 인테리어 브랜드 까사미아가 참여했다. 이들 자매의 생활공간인 일명 '제크하우스'는 로프트하우스를 연상시키는 실내 인테리어 사진이 먼저 공개되면서 방송 전부터 네티즌 사이에 큰 화제를 모았다.

높은 천장과 큰 창을 가진 제크하우스의 거실은 쿨링 라인 디테일의 가죽소파와 원목가구들이 거친 벽돌 마감재와 어우러져 빈티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 2층 다이닝룸에 마련된 스틸 프레임과 원목판이 결합된 식탁, 침실에 자리잡은 아늑한 침대 등도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최수영 까사미아 홍보팀장은 "방송 2주 만에 소파와 침대·테이블 등 방송에 노출된 제품들에 대한 고객 문의가 평소보다 30%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다.

유명 연예인들이 한 지붕 아래 함께 모여 살며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그려낸 SBS '일요일이 좋다-룸메이트'는 출연자들의 방을 각기 다른 스타일의 개성 넘치는 인테리어로 꾸며 시각적인 재미를 더했다.

에스티지데코는 방송 속 인테리어 중 비비드한 컬러가 돋보이는 홍수현·나나의 방, 심플한 화이트 톤의 신성우·찬열의 방, 북유럽풍의 이동욱·조세호의 방에 제품을 협찬하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싱글족, 1인 가구의 증가로 셰어하우스의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20~3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점이 룸메이트와 맞아 협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심 에스티지데코 홍보팀 대리는 "'룸메이트 협찬 가구'라는 검색어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까지 직접 제품을 구입하러 오는 고객도 있을 정도"라며 "예능 프로그램 협찬이 드라마 협찬보다 소비자들로부터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인 기자 hjung0404@metroseoul.co.kr

온스타일의 '제시카 앤 크리스탈' 속 제크하우스의 모습(위)과 SBS '일요일이 좋다-룸메이트' 방송 화면.

의류·잡화 브랜드, 방송 제작지원 크게 늘어
'콘셉트·전속모델·한류 기대'…이유도 다양

최근 의류·잡화 브랜드의 TV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지원이 눈에 띈다. 이는 해당 방송의 시청률과 콘셉트, 출연 배우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특히 드라마 한류의 여파로 중국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제작 지원은 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은 지난달 11일 첫 방송을 시작한 SBS 신규 예능프로그램 '도시의 법칙'(사진 위)을 제작 지원했다.

도시의 법칙은 대도시에서의 생존을 테마로 한 새로운 포맷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노스페이스 등은 이 프로그램 메인 협찬사로 참여해 제작진과 출연 멤버들에 필요한 의류를 지원하고 있다.

브랜드 관계자는 "출연진들이 뉴욕을 배경으로 세련된 디자인의 가방과 신발, 티셔츠 등 데일리 아웃도어 스타일 제품들을 착용해 뉴요커 못지 않은 패션센스를 선보였다"며 "시청자들도 간접적으로 뉴요커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려한 대도시가 표방하는 생존 도전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방송에 보여줌으로써 방송과 브랜드 간에 궁합이 잘 맞는다고 업체 측은 평가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엠리밋(아래)의 경우 전속모델인 정은지가 주연으로 참여한 KBS 월화드라마 '트로트의 연인'을 제작 지원하며 전속모델에 대한 지원을 이어갔다.

정은지와 함께 지난 5월부터 브랜드 전속모델로 기용된 엄지원이 출연 중인 MBC 월화드라마 '트라이앵글' 역시 엠리밋의 제작 지원 하에 방영 중이다. 두 모델 모두 젊은 층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2535 세대'를 주 타깃으로 한 브랜드 콘셉트와 잘 부합한다고 회사 측 관계자는 전했다.

주얼리·핸드백 브랜드 제이에스티나는 인기리에 방영 중인 SBS 월화드라마 '닥터 이방인'의 제작지원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에서의 인기가 높다. 지난 17일 중국 현지 시청수가 전날 13회 방송에 비해 2배 이상 오르는 등 중국 내에서 더 한국 드라마에 대한 높은 인기를 보여주며 국내외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브랜드는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라 이런 소식이 고무적이다. 올 7~8월에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의 공항 면세점에 입점할 예정이고 10월 경엔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해 내년 초 중국에 첫 매장을 열 계획이다.

이 브랜드는 이미 김연아, 지드래곤·송혜교 등 톱스타를 필두로 지난해 말 21.8%(닐슨코리아 제공)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최근 종영된 SBS 드라마 '수군의 태양' 같은 한류 드라마를 통해 중국내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학철 기자 kimc0604@

멜로만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골든 크로스' 열혈 복수남 **김강우**

김강우(36)는 작품 활동에 충실한 배우다. 다작하며 꾸준히 연기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달 19일 종영된 KBS2 '골든 크로스'에선 아버지와 여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강도윤을 연기했다. 그윽한 눈빛과 야무진 입매가 역할에 신뢰를 부여했다. 작품은 시청률 5.7%(닐슨코리아 전국기준)로 동시간대 3위로 시작해 10.1%로 종영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 '골든 크로스' 결말, 현실적이다

김강우는 초반 시청률 부진에 대해 "연기에 집중했다"며 "출연진이 작은 역할을 할 배우들이 아니라 자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극이 진행될수록 서동하(정보석)와의 대결이 고조되면서 시청률 반등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의를 두고 싶었어요. 최근 인기있는 드라마를 보면 주로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행복을 세상의 가치인 것처럼 그리더라고요. '인간사장' '모래시계'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이 없는 거 같아요. '골든 크로스'가 그 역할을 했죠. 다 멜로만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골든 크로스'의 결말은 논란에 휘싸였다. 강도윤은 죽은 아버지와 여동생을 상상하며 눈물 젖은 김밥을 먹는다. 반면 악인 서동하는 출소하자마자 재기를 준비한다.

"오히려 현실적인 결말인 것 같아요. 원래 김밥 먹는 장면과 가족 사진이 함께 비쳐지면서 사진 속엔 엄마와 강도윤만 남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감독이 강도윤 얼굴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죠."

엄청난 대사량을 소화했고 복수를 위해 고함을 질러야 했다.

"항상 신문이나 책, 시나리오 등 읽을 거리를 옆에 둬야 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대사가 많으니까 글을 읽는 것조차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발성 좋아요. (웃음) 연극을 전공했거든요. 고함칠 땐 발음에 신경을 썼어요. 장단음을 찾아가면서 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강도윤 같은 캐릭터들 좋아하진 않아요. 누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겠어요. 다만 시청자가 강도윤의 복수로 통쾌함을 느껴야 해서 과하게 표현했죠."

◆ 국민 형부 아니에요

김강우는 유부남임에도 많은 여성들의 이상형으로 꼽힌다. 또 지난해 SBS '힐링캠프'에선 '국민 형부'라는 별명도 얻었다.

"저제인 한혜진한테 방송에 그려진 것처럼 자상하지 않아요. 여자랑 있으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말도 잘 안 해요. 연애를 한 여자랑 오래해서 더 그런가 봐요. 낯을 많이 가려 배우가 되기 전에도 사람 많은 곳을 잘 안 갔죠. 그리고 이 상형 같은 얘기를 아내가 들으면 '살아보라고 해'라고 말해요. 스스로 생각해도 전 보수적이고 잔소리가 많거든요. (웃음)"

그는 청소와 집안일을 즐기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작품 끝나고 체력이 떨어져서 아직 쉬고 있어요. 집을 떠나 있었더니 친구도 다가 있고 할 일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하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촬영에 들어가면 가족과 친구들에 3개월 동안 연락을 않아서 안 하죠. 평소 TV도 잘 안 봐요. 예능 프로그램보다는 스포츠 다큐멘터리나 '동물의 왕국' 같은 동물 프로그램을 더 좋아하고요."

◆ 흥행? 의미 두지 않는다

김강우는 2002년 영화 '해안선'으로 데뷔한 후 12년 동안 30여 작품에 출연했다. 주로 영화계에서 활동했다.

"차기작은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영화가 주업이긴 하지만 '골든 크로스'를 통해 드라마도 제 성격과 맞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격이 급한데 드라마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니까 재미 있더라고요. 또 드라마 연기는 영화에 비해 약하게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배웠죠."

그러나 흥행에 있어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 좋은 작품을 선택하면 좋겠죠. 그러나 작품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흥행이 안 됐다고 작품 자체가 인정받지 않을 이유는 없죠. 과정이지만 계속 노력해야죠."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디자인/최송이

다정한 형부 아니다
이 드라마,
내 급한 성격과 맞아

K-팝 명곡 미국이 먼저 알아본다

퓨즈TV, 에프엑스 새앨범 집중조명
빌보드, 싸이·태양 뮤비 성적 보도

팝의 본고장 미국의 주요 음악 매체들이 K-팝의 트렌드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음악채널 퓨즈TV는 에프엑스의 3집 타이틀곡 '레드 라이트'에 대해 "불하고 멋진 팝"이라고 평가했다. 퓨즈TV는 최근 '에프엑스 신곡 '레드 라이트'로 K팝 트렌드를 이끌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존에 선보인 톡톡 튀는 느낌의 음악보다 더 열리한 방식으로 관중 끌만한 음악을 만들었다. 음악의 소리 요소를 굉장히 세심하게 듣게 만드는 멋진 팝"이라고 평가했다.

3집은 7일 온·오프라인에 정식 출시되며, 퓨즈TV는 앨범이 발매되기도 전에 뮤직비디오를 보고 즉각적인 평가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퓨즈TV는 3일 공개된 이 곡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00만 건을 돌파한 소식을 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멤버들의 콘셉트도 언급했다. 또 에프엑스가 지난 여름 발매한 앨범 '핑크 테이프'가 지난해 퓨즈TV가 선정한 '2013년 베스트 앨범 41'에 아시아 가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만큼 새 앨범 역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레드 라이트'는 리듬의 반전이 인상적인 에너지 넘치는 일렉트로 하우스 장르다. 유튜브에 공개된 뮤직비디오가 6일 오전 현재 조회수 400만 건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는 싸이와 태양의 뮤직비디오가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K-팝 뮤직비디오 1·2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빌보드에 의하면 6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본 K-팝 뮤직비디오는 싸이의 '행오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의 '눈 코 입'과 '새벽 한 시' 뮤직비디오가 2위와 3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유튜브의 제왕 싸이가 선두"라고 밝히며 "태양 역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스눕독이 피처링한 '행오버'는 6월 8일 공개된 이후로 9000만 건이 넘는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행오버' 뮤직비디오는 6일 오전 현재 9217만 건을 기록하며 1억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빌보드는 싸이와 순위를 다툰 태양의 글로벌 인기에 주목했다. 빌보드는 "태양의 새 앨범 '라이즈'는 빌보드 200 차트에서 112위를 기록하며 미국 진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태양은 지난달 2일 정규 2집 타이틀곡 '눈,코,입'을 발표해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의 일간·주간·월간차트 정상을 석권했다. 또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총 7개의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

3집 '레드라이트'를 발표한 에프엑스

2집 '라이즈'를 발표한 태양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서인영, EB로 새출발

CJ E&M 레이블 합류

서인영(사진)이 CJ E&M의 음악 레이블에서 가수 활동을 새롭게 시작한다.

1인 기획사인 '서인영 컴퍼니'를 운영해 오던 서인영은 회사 이름을 EB로 변경하고 CJ E&M의 서브 레이블로 합류한다. 그는 새로운 음악 레이블에서 음반 제작과 가수 활동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CJ E&M은 "서인영의 음악 색깔과 방향을 존중하고 고유의 음악적 가치가 외부에 더욱 발현될 수 있도록 음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EB를 통해 서인영을 중심으로 트렌디하고 퍼포먼스가 강한 아티스트들을 적극 영입·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내 음악 산업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레이블 체제를 도입한 CJ E&M은 EB의 가세로 총 7개 레이블을 운영하게 됐다. CJ 뮤직(로이킴·정준영), 젤리피쉬(성시경·박효신·서인국·빅스), 뮤직웍스(박지영·유성은), MMO(손호영·휘성·박보람), 1877(하이니·와썹), 일본 CJ 빅터 등의 레이블을 거느리고 있다.

서인영은 "제작부터 활동, 홍보 마케팅 등 모든 사항을 챙기는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음악 제작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며 "음악 사업의 인프라와 성공 역량을 갖춘 CJ E&M을 통해 더욱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JYJ 아시아 8개 도시 투어

내달 9일 잠실서 출발

그룹 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사진)가 다음달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6일 "JYJ가 8월 9일 서울 잠실주경기장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시아 투어를 연다. 홍콩·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8개 도시에서 투어를 하고 팬과 만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7월 말 발매 예정인 앨범의 뮤직비디오와 재킷 촬영을 마쳤으며, 녹음 작업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JYJ 역시 오랜만에 한 무대에 서서 팬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투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JYJ는 새 앨범에 실릴 수록곡 중 대다수 곡의 가사를 직접 쓰고 있다고 알려지며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 잠실주경기장 공연 개최 소식, 아시아 8개 지역 투어 소식 등을 전하며 컴백을 앞두고 국내외 팬들의 기대를 끌어올리고 있다. JYJ의 정규앨범은 3년 만이다. /유순호기자

'예능 대세' 헨리 가수 복귀

미니 2집 '판타스틱' 발표

예능 대세로 급부상한 슈퍼주니어 M 멤버 헨리(사진)가 본업으로 돌아온다.

헨리는 14일 두 번째 미니앨범 '판타스틱'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글로벌 음악 팬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첫 미니앨범 '트랩' 이후 1년여 만에 발표하는 이번 음반에는 6곡의 다양한 장르가 수록됐다. 헨리가 결성한 작곡팀 노이즈뱅크의 4곡이 수록돼 헨리의 음악적 재능과 다채로운 음악 색깔을 만날 수 있다.

헨리는 슈퍼주니어-M의 멤버로 중화권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MBC '일밤-진짜 사나이'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귀여운 외모와 엉뚱하고 순수한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다. 노래와 춤, 뛰어난 악기 연주 실력, 작곡 능력, 외국어 실력까지 갖춰 이번 앨범에서 보여줄 활약에 관심이 쏠린다. /유순호기자

샤키라 '월드컵의 연인'

3회 연속 폐막식 공연

'월드컵의 연인' 샤키라(사진)가 3회 연속 폐막식 무대를 장식한다.

세계적인 팝 스타이자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 제라르 피케(FC 바르셀로나)의 아내이기도 한 샤키라는 14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열리는 2014 브라질 월드컵 폐막식에서 공연한다.

2006년 독일 월드컵 폐막식에서 '힙스 돈 라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폐막식에서 '와카 와카'를 열창한 샤키라는 올해 폐막식 공연 명단에 뒤늦게 이름을 올리며 3회 연속 월드컵과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폐막식에서 이번 대회 공식 주제가인 '라 라 라(브라질 2014)'를 부른다. '남미의 리듬을 잘 살려낸 곡으로 뮤직비디오에는 남편 피케와 바르셀로나 동료인 리오넬 메시가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샤키라는 음반 유통사를 통해 "이번 무대에도 설 수 있어서 기쁘고 축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월드컵이 가지는 커다란 의미 또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남편 피케가 속한 스페인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본선에 탈락해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 샤키라는 폐막식 공연으로 남편의 아쉬움을 대신하는 처지에 놓였다.

폐막식에는 샤키라를 비롯해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산타나, 브라질의 인기 가수 이베치 상갈루 등이 출연한다. /윤순호기자 suno@

안방 남자들의 사랑 공식

'권력 쟁취' 목표·'너만 바라봐' 형…로맨스 개성 달라

드라마 남자 주인공의 사랑 방식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변심한다. 화합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던 과거 남성 캐릭터와는 다르다. 순애보 남자 주인공도 있다. 딱심 있게 한 여자에게 구애하는 그들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매력적이다.

◆ 변심 정경호·박해진

SBS 수목극 '끝없는 사랑'의 정경호는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성장하기 위해 첫사랑을 잠시 접어둔다. 한광철(정경호)과 서인애(황정음)는 어릴 때부터 함께 한 동네 친구다. 히로요시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살게 된 그는 재일 교포 개발의 수하로 고국 땅을 다시 밟았고 서인애에게 고백하러 갔다가 형 한광훈(류수영)과 서인애의 키스를 목격한다. 이를 계기로 변심한다. 사업상 인연을 맺은 김건표(정동환) 총리의 딸 김세경(전소민)과 사랑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해진은 SBS 월화극 '닥터이방인'에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다. 오수현(강소라)의 아버지 오준규(전국환)의 비리를 고발하고 이사장이자 과거 의료사고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데 일조한 오준규(전국환)를 찾이기 복수를 위해 신분을 숙였음을 밝혔다. 오수현과는 적이지만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과거 비슷한 설정에 처한 남자 주인공이 연인 때문에 복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다. 오수현과의 이별에선 아슥함이 서린 눈빛을 보내 캐릭터에 현실성을 부여했다는 평이다.

◆ 순정 이상우·이종석

이상우는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에서 이별을 고한 정다정(박세영)에게 계속 마음을 보이며 사랑을 쟁취했다. 그가 맡은 서재우역은 모태솔로이자 일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정다정을 만나고 순정남으로 변신한 그는 풋풋한 연애 방식으로 여심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서재우의 엄마는 정다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엄마의 말을 잘 듣던 이 효자는 연인과의 사랑을 당당하게 밝히며 도리어 순정파의 속심을 보여줬다.

요즘 첫사랑 바라기의 대표는 이종석이다. 대사의 절반 이상이 "송재희"라는 비판도 있지만 담담한 눈빛과 대사는 긴장감 있는 남북 메디컬 첩보 장르에 숨통을 터준다.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 초반엔 송재희(진세연)와 남북을 초월한 사랑을 그렸다. 종영을 2회 앞둔 현재 송재희는 오수현(강소라)이 박훈(이종석)을 짝사랑하는 걸 알고 이별을 준비한다. 그러나 박훈의 마음은 여전히 송재희다. 예전처럼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SBS 주말극 '끝없는 사랑' 정경호. /SBS 제공
SBS 주말극 '기분좋은날' 이상우 /SBS 제공

이루마 재즈 신보 발매

기존 곡 재해석한 '아트모스페라'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사진)가 '아트모스페라'를 발매했다.

'아트모스페라'는 이루마가 이제까지 선보였던 곡들과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곡을 재즈 선율로 재해석한 음반이다. 앨범에 수록된 15곡의 프로듀싱은 국내 정상의 재즈 기타리스트 김민석이 맡았다.

또 장르의 한계를 넘나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승아가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실력파 뮤지션 조윤성·고상지·홍준호·나희경, 세계적인 퍼커션 연주자 넬티노 에나스티시오가 참여해 앨범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루마는 "여러분이 사랑해 주셨던 곡들을 새롭게 들려 줄 수 있다는 점과 제가 특별히 아끼는 곡들을 다시 꺼내어 볼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의미에서 특별하고 소중한 앨범"이라며 "'이루마가 만든 음악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라는 신선함과 조금 더 많은 분의 귀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앨범이 되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한편 이루마는 지난해 정규 8집 '블라인드 필름' 발매와 동시에 전국 투어를 시작해 올해까지 32개 도시 관객들을 찾아가 소통하고 있다. 지난 4월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번째 단독 콘서트에선 5000여석이 매진됐다. 현지 관객과의 직접 소통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지민기자 kmk@

모성♥ 가득한 주말 드라마

'한국판 어머니' 윤여정·'현실 엄마' 김미숙 열연

주말 드라마가 진한 모성애를 그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KBS2 '참 좋은 시절'과 SBS '기분 좋은 날'은 홀로 자녀를 키운 모정을 다양한 관계 속에서 보여준다. 윤여정과 김미숙은 다양한 엄마의 모습을 연기한다.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 윤여정.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 김미숙

윤여정은 '참 좋은 시절'에서 모든 걸 포용하는 전형적인 한국판 어머니 장소심 역을 맡았다. 강씨 4남매를 홀로 키웠다. 바람나 떠난 남편인 강태섭(김영철)이 빈털터리가 돼 돌아왔지만 애증하며 품는다. 남편의 둘째 부인 하영춘(최화정)과 함께 산다. 하영춘의 아들 강동희(옥택연)를 제 자식처럼 키웠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답답한 인물이다. 그러다 '엄마'라는 이유로 장소심의 모성은 매회 시청자를 감동하게 한다.

김미숙은 '기분 좋은 날'에서 홀로 세 자매를 키운 무명 작가 한송정을 연기한다. 한송정과 세 딸은 서로 의지하며 희망을 이야기한다. 모녀의 모습이 시청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맏이 정다애(황우슬혜)는 이혼남과의 결혼으로 한송정을 속상하게 했다.

"남의 자식을 어떻게 키워"라고 말하며 우는 엄마의 모습이 40~50대 여성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했다는 평이다. 둘째 정다정(박세영)은 가장 의젓하다. 엄마의 인생을 설계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친구 같은 모녀의 모습으로 캐릭터에 현실감을 부여한다. 한송정은 사랑과 결혼을 믿지 않는 인물이다. 그러다 향후 남궁영(손창민)과 재혼할 예정이다. 엄마도 여자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극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효진기자

샤토 마고(Chateau Margaux)

조민호의 와인스토리

카베르네 소비뇽(Cabernet Sauvignon)으로 만드는 와인에서 전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샤토 마고(Chateau Margaux)는 프랑스의 자존심이다.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 때 그랑크뤼 1등급으로 선정된 4개 샤토(현재는 5개) 중에서도 으뜸이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주인도 바뀌고 품질의 위기도 겪었지만 부활에 성공한 지금, 여전히 톱 클래스의 와인을 만든다.

흔히들 샤토 마고 와인을 "벨벳"에 비유한다. 강인한 골격을 부드러움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포도나무는 피레네 산맥에서 흘러 내려온 자갈밭에서 억척스럽게 자라 열매를 맺는다. 수확 후 발효를 거쳐 숙성하면서 오랜 시간 연체된 최고의 와인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프랑스인들은 자기 민족을 닮았다고 생각한다.

샤토 마고는 지역적으로 와인의 메카 보르도에 속한다. 보르도는 카베르네 소비뇽의 고향이다. 카베르네 소비뇽이야말로 보르도 와인을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려 놓은 주인공이다.

프랑스도 우리나라의 도-군-면-리 행정구역과 같은 구조로 세분화된다. 보르도를 관통하는 지롱드강 하류를 바라보면서 왼쪽에 메독이 있다. 메독은 다시 하류 지역의 바메독과 상류 언덕 지점의 오메독으로 나뉜다. 바로 이 오메독에 △생테스테프 △생쥘리앵 △뽀이약 △리스트락 △물리 △마고 등 6개 마을이 있고 여기에 그랑 크뤼 5개 등급 61개 샤토가 몰려 있다. 샤토 마고는 바로 마고 마을의 터줏대감이자 프랑스 와인 문화의 중심이었다.

역사적으로도 샤토 마고는 큰 족적을 남겼다.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은 보르도 지방의 쟁탈전이었다. 손녀의 이름을 마고라고 지을 만큼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사랑한 와인이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주 프랑스 공사로 재직할 때 샤토 오브리옹과 함께 극진히 아꼈던 와인이었다. 독일의 수상 아데나워가 1949년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세계대전을 일으켜 프랑스인에게 고통을 안긴 것"을 사죄했던 장소가 바로 샤토 마고다. 프랑스인에게 샤토 마고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의 한가운데서 빛나는 존재다.

/mcho@metroseoul.co.kr

날씨

7/7 月 일출시각 05:17 일몰시각 19:5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131.co.kr

서울,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제주, 강릉, 울릉도, 대구, 포항, 울산, 부산

복부 비만은 뇌졸중과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아침식사를 거르지 말고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하며 술자리 안주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illegible]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angaf0006.com

해외여행 동행자 찾는데 잘될까요
역마 흐름, 사고위험 있으니 신중을

diwis 여자 92년 2월 20일 음력 오후 1시 15분

Q 안녕하세요. 여행가고 싶은데 성사될 수 있을까요. 여자 92년 음력 2월 20일 오후1시 15분에 태어났습니다. 8월초쯤에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인터넷 카페 등에서 동성(여성) 동행 분은 찾아보려고 했니다. 마음 맞는 좋은 사람 만나서 여행이 잘 성사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은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해외에 다녀오는 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A 여행 온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이 좋은데 인터넷 카페에서 동반자를 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기도 하거니와 친구가 없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팔자 팔에는 식상인고(寅子入墓) 임신계고(酉申戌亥)의 원리현상에 따라 이론고 새로운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축(丑)이 나쁘게 작용한다고 하지만 또 합(合)으로 구제되는 경우도 소중히 살펴서 취해야 하는데 사주에 천살이 끼고 있습니다.

귀하에게 천살을 설명하자면 2017년 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고 물러가게 작용이 됩니다. 태어난 일(日)에서 비라볼 때 월(月)에 천살이 작용하고 있는데 건재(健在)까지 겹쳐있어서 똑똑하고 빠릿거 무기력해집니다. 천성은 순수하고 담백하지만 논리는 약하고 호기심은 강한 즉흥적인 기질을 듣게 되는데 쉽고 곧 식어버리는 그릇입니다. 대개의 경우 낙천적인 기질로 쉬쪽의 변동시에는 특히 해외여행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는데 운에서 젊이의 흐름으로 가니 생각은 많이 했다고 봅니다.

용모가 단정하고 명월 일귀(日貴)하여 아름이 순진하고 천진스러운 호감을 사게 되어 모르는 사람이라도 성사는 되겠지요. 길지 술을 설명하는데 어려운 문장을 쓰는 것은 아닌데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다시 한 번 얘기해봅니다. 행후질가(合後疾苦) 처음에는 화합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미워하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며 목적 없는 여행을 꿈꾸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며 진단과 경험이 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 할 우려도 없읍니다. 음력 7월이 지나면 들뜨는 마음이 사정적으로 변할 테니 악기를 선정하여 취미로 배워보심이 어떨지요.

자신의 사주를 풀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등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1				6		
					9	8		2
		7		1		9		
5			2	6				7
			4		3			
4				9	7			6
		6		2		5		
2		8	5					
		5				1		4

9	3						2	
4		1	9					
	7		3		1	9		
		6		4	2		5	
				9				
	2		7	8		4		
		8	2		7		9	
					4	3		2
	6						1	4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펜시 스도쿠 리미티드
(마루출리오스 커뮤)

신점[神占] 운세 7월7일 윤 6월11일 김락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고비마다 귀인이 돕는구나. 60년생 기본에 충실하면 손해 없니. 72년생 일이 잘 풀려도 조심 잃지 마라. 84년생 경쟁자 물리치고 자리는 지킨다.

소: 49년생 자녀기 희소식 전한다. 61년생 내 것이 아니면 눈길 주지 말라. 73년생 정보를 얻는 자가 세상 지배한다. 85년생 인생이 생각대로 되면 재미없는 법~

호랑이: 50년생 육체더라도 전혀 문제 빠지 말라. 62년생 알쏭달쏭 겉보는 참고만 하라. 74년생 뻐려대던 동반자 관계는 회복된니. 86년생 무심한 언긴 때문에 쩍쩍~

토끼: 51년생 몸이 날래져야 마음도 움직인다. 63년생 문서 일은 권명만 따라. 75년생 티격태격하던 부부는 금슬이 좋권다. 87년생 김예들은 피하지 말고 움직여라.

용: 52년생 힘께 없는 사람에 돈 던져보려. 64년생 생각도 못한 이득이 생긴다. 76년생 유화해 피는 상대에 속지 말도록~ 88년생 용기 있는 비 권에 박수 쏟아진다.

뱀: 53년생 나 홀로 성공은 어렵다. 65년생 술기운이 인한 말실 조심~ 77년생 너를 돌아보는 고귀한 글을 받는다. 89년생 기분이 상해도 천박한 막말은 피하라.

말: 42년생 호들기 잘한 환자는 조심~ 54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니. 66년생 내가 할 말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라. 78년생 위산은 올리기고 목소리도 커진다.

양: 43년생 황당한 일 정적이 찾아온다. 55년생 과음으로 인한 실수 조심할 것. 67년생 끊어졌던 거래처가 다시 찾아온다. 79년생 일짜정보 들어오니 꼭 챙겨라.

원숭이: 44년생 계획은 변경하지 말라. 56년생 과잉친절는 건강해준다. 68년생 부부간에 오인 일은 대월로 털어라. 80년생 세 살의 첫 관문은 잘 통과한다.

닭: 45년생 자녀기 희소식 전한다. 57년생 가정에 화목하니 만사가 순풍에 돛~ 69년생 생각이 많으면 찾아온 기회 놓친다. 81년생 변수가 많으니 끝까지 포기 말라.

개: 46년생 곁에 있는 행은 삼가라. 58년생 밖으로 나가면 귀인 대접받는다. 70년생 변수가 있어도 생각대로 진행할 것. 82년생 욕심 부리면 곡중날 일만 생긴다.

돼지: 47년생 약안으로 원한 사람은 떠난다. 59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명심~ 71년생 자녀 문제로 신경 쓸 일이 생긴다. 83년생 고집 부려서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

벨기에를 꺾고 4강행을 확정지은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네덜란드의 아리언 로번이 승부차기에서 골을 성공시키자 코스타리카 선수들이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AP 연합뉴스

아르헨티나·네덜란드 '이변 불허'

'다크호스' 벨기에·'돌풍의 핵' 코스타리카 꺾고 4강행

더 이상의 이변은 없었다.

남미와 유럽의 강호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가 유럽의 젊은피 벨기에와 돌풍의 핵 코스타리카를 각각 누르고 2014 브라질 월드컵 4강에 진출했다. 조별리그에서부터 강팀들이 패배와 탈락의 이변이 속출했지만, 토너먼트가 계속될 수록 객관적으로 전력이 뛰어난 팀들이 예상대로 승리하고 있다.

6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마네 가힌샤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는 곤살로 이과인의 결승골을 앞세워 벨기에를 1-0으로 꺾었다. 아르헨티나는 1978년 자국에서 열린 대회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 이어 28년 만에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노린다.

결승골은 전반 8분 만에 나왔다. 앙헬 디마리아가 미드필더의 안쪽으로 찔러준 패스가 벨기에 수비수를 맞고 굴절되자 이과인이 바로 슈팅해 골로 연결시켰다. 이후에도 벨기에는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한 채 아르헨티나의 맹공을 막는데 급급했다.

전반 27분 리오넬 메시가 돌파해 들어가다 연결한 패스를 받은 디마리아가 때린 슛은 벨기에 센터백 뱅상 콤파니에게 막혔다. 전반 38분 메시가 돌파해 가다 상대 파울로 얻은 프리킥을 직접 슈팅으로 시도했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벨기에는 전반 40분 케빈 미랄라스가 안 페르통언의 크로스를 헤딩슛으로 연결했으나 볼이 골대를 살짝 빗나가며 동점 기회를 놓쳤다. 벨기에는 후반 로멜루 루카쿠와 드리스 메르텐스를 교체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지만 골을 터트리지는 못했다.

앞선 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메시는 후반 추가시간 역습으로 만든 결정적인 골 찬스가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에게 막히며 연속 공격 포인트 행진을 마감했다.

네덜란드는 사우바도르의 폰치 노바 경기장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 무득점으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4-3 승리를 거뒀다. '초고속 축구'를 앞세워 막강 화력을 자랑하던 네덜란드는 코스타리카의 견고한 수비와 골키퍼 케일러 나바스의 '선방쇼'에 막혀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다.

전반 21분 로빈 판 페르시와 베슬러이 스네이더르의 연속 슛, 전반 29분 멤피스 데파이의 왼발 슛, 전반 38분 스네이더르의 프리킥 등은 모두 나바스의 손과 발에 막혔다. 후반 37분 스네이더르의 프리킥은 골대에 맞고 튕겨져 나왔다. 스네이더르는 연장 후반 종료 직전 결정적인 왼발슛을 또 한번 골대에 맞히는 불운을 맛봤다.

나바스의 선방으로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갔지만 승리의 주역은 네덜란드 골키퍼 팀 크롤이었다. 루이스 판 할 감독은 승부차기를 대비해 연장 종료 직전 선발로 출전한 야스퍼 실레선을 대신해 크롤을 투입했다.

네덜란드 키커들이 모두 성공한 사이 크롤은 코스타리카 두 번째 키커 브라이언 루이스와 다섯 번째 키커 마이클 우마냐의 슛을 막아내며 네덜란드에 4강행 티켓을 안겼다.

네덜란드는 아르헨티나와 10일 오전 5시 상파울루의 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 준결승전을 치른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내 친구 네이마르 어서 낫기를"

메시·볼트·빈첸 등 국경·직업 초월 위로 메시지

브라질의 축구 영웅 네이마르의 월드컵 중도 하차에 전 세계 유명인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5일 콜롬비아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8강에서 상대 수비수 후안 카밀로 수니의 무릎에 허리를 맞고 척추 골절상을 입은 네이마르는 4강을 비롯한 남은 경기 출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 축구 관계자는 물론 라이벌 소속 선수들까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바르셀로나에서 함께 뛰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페이스북에 네이마르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며 "내 친구 네이마르, 어서 낫기를"이라고 적었다. 네이마르와 함께 브라질의 4강행을 이끈 다비드 루이스는 트위터에 "브라질 전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며 첫 월드컵을 아쉽게 끝내게 된 네이마르의 슬픔을 달랬다.

준결승에서 브라질과 맞대결을 벌일 독일의 메주트 외질, 조별리그에서 탈락의 쓴 맛을 본 이탈리아의 마리오 발로텔리 등도 국경을 넘은 우정의 메시지를 남겼다.

브라질의 '축구 전설' 펠레는 트위터에 "그가 이번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대표해 뛸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도 "어서 회복해 그라운드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

육상 단거리 세계기록 보유자 우사인 볼트, 미국프로농구 르브론 제임스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도 트위터에 쾌유를 기원했다.

브라질 출신의 톱 모델 지젤 번천은 네이마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건강을 잘 지키라"고 전했다.

리오넬 메시가 페이스북에 네이마르의 쾌유를 비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리오넬 메시 페이스북

한편 네이마르는 브라질축구협회를 통해 아쉬움과 우승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그는 "월드컵 결승에서 뛰고 싶었던 나의 꿈이 도둑맞았다"고 비탄해했다. 그러면서도 "세계 챔피언이 되는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동료들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고 이는 실현될 것"이라고 생애 첫 월드컵 우승을 기원했다.

통산 여섯 번째 우승을 노리는 브라질은 9일 독일과 준결승을 치른다.

/유순호기자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콜롬비아의 후안 카밀로 수니가의 무릎에 가격당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4강전 '남미 vs 유럽' 대륙 자존심 대결

골잡이 메시-로번·골키퍼 세자르-노이어 경쟁도 볼거리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컵의 주인은 남미와 유럽의 정면 대결로 가려지게 됐다.

여섯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개최국 브라질, 명원한 4강 독일, 지난 대회 준우승팀 네덜란드, 세계 최고 공격수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 등 '올라야 할' 팀들끼리 맞붙는다. 준결승 두 경기 모두 남미와 유럽의 대결이라 축구 명가의 자존심을 건 대륙간 경쟁도 또 다른 볼거리다.

◆ 브라질-독일(9일 오전 5시·벨루오리존치 미네이랑 주경기장)

어게인 2002로 불리는 대결이다. 두 팀은 역대 월드컵 중 2002년 한일 대회 결승에서 한 차례 경기했다. 당시 브라질이 2-0으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12년 만의 대결에서도 개최국의 이점을 등에 업은 브라질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지만 여러 변수가 승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상을 당한 네이마르의 결장이 브라질에게는 가장 큰 전력 손실이니 헐크, 오스카르, 프레드 등이 포진된 공격진은 여전히 막강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팀을 구해줬던 네이마르의 빈자리는 클 수밖에 없다.

독일은 힘과 속도를 비탕으로 하는 '전차 군단'의 위용을 존재감 발휘하지 못했지만 4개 대회 연속 4강에 오르며 토너먼트 강자 다운 면모를 잃지 않았다.

독일도 세계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인 사미 케디라와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의 부상으로 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 경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최고 골키퍼들의 세이브 쇼다. 브라질의 줄리우 세자르는 칠레와의 16강전 승부차기에서 두 번이나 슛을 막아내며 8강 진출에 일등공신이 됐다. 독일의 마누엘 노이어는 16강전에서 폭넓은 수비 범위, 8강에서 신들린 듯한 선방으로 상대 공격을 철저히 봉쇄했다.

◆ 네덜란드-아르헨티나(10일 오전 5시·상파울루 코린치앙스 경기장)

최고 공격수들간의 화력 대결이다. 세계 최고의 골잡이 메시의 발끝에 아르헨티나의 운명이 달렸다. 메시는 이번 대회 5경기에서 4골 1도움으로 아르헨티나 전체 득점(7골)의 대부분을 만들어냈다. 8강전에서는 5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상대 수비진은 엄청난 압박을 느꼈다.

메시에 집중된 수비진의 빈자리를 노려 8강에서 골을 넣은 곤살로 이과인 등 동료 공격수들의 활약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네덜란드에는 '총알 탄 사나이' 아르연 로번을 중심으로 로빈 판페르시, 베슬러이 스네이더르 등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력을 지닌 선수들이 골 사냥에 나선다. 네덜란드는 이들을 앞세워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12골을 기록하고 있다. 2골을 넣은 특급 조커 멤피스 데파이도 아르헨티나 수비진이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중원의 핵 나이절 더용이 사타구니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해 아쉽다.

/채성오기자 sung@metroseoul.co.kr

브라질 골키퍼 줄리우 세자르가 칠레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가 알제리와의 16강전에서 완벽하게 골문을 지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타이틀 방어 16초면 끝 MMA 여제 론다 로우지(왼쪽·미국)가 무자비한 타격본능을 분출하며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로우지는 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델라베이 이벤트센터에서 열린 UFC(종합격투기대회) 175 메인카드 제4경기 여자 밴텀급 알렉시스 데이비스(캐나다)와의 경기에서 니킥과 다운에 이은 연속 타격으로 1라운드 16초 만에 TKO 승리를 거뒀다. 로우지는 10승 무패를 기록하며 챔피언 4차 방어에 성공했다. /AP 연합뉴스

김효주 KLPGA 2연승

금호타이어 오픈 우승…시즌 상금 4억 돌파

김효주(19·롯데·사진)가 2014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가장 먼저 시즌 상금 4억 원을 돌파했다.

김효주는 6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포인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기록해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로 우승했다.

이로써 김효주는 지난달 22일 끝난 한국여자오픈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으며 우승 상금 1억 원을 더해 시즌 상금 4억5938만원으로 상금 부문 선두를 차지했다.

이미 2라운드에 2위보다 6타 앞서 있던 김효주는 이날 4번 홀(파3)까지 3타를 더 줄이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 6번 홀(파5)에서 더블보기를 했지만 2위와의 격차가 5타였다. 9번과 10번 홀에서 다시 연달아 버디를 낚는 등 3라운드 내내 2위와의 격차를 5타 이상으로 유지했다.

개인 통산으로는 KLPGA 투어에서 4승째다. 이 가운데 2012년 롯데마트 오픈은 아마추어 신분으로 우승한 것이다. 고진영(19·넵스)은 6언더파 210타로 준우승했다. 이민영(22)과 정희원(23·파인테크닉스)이 나란히 5언더파 211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2012년 메이저 대회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챔피언십 우승자 펑산산(중국)은 3언더파 213타, 공동 7위로 대회를 마쳤다.

/권효경기자 [illegible]

프로야구 전적 (6일)

■ 잠실

삼성	020	003	110	7
두산	000	000	022	4

[illegible]

■ 목동

KIA	101	000	002	4
넥센	010	031	00X	5

[illegible]

프로축구 전적 (6일)

성남	1	1	울산

[illegible]

인천	1	2	상주

[illegible]